



제5장 인물총람 (人物總攬)

제 1 절 공덕(功德)

1. 강백규(姜伯圭)

계남면 장안리 회평 마을에서 출생한 선생은 1950년 9·28 수복 후 아군이 이곳에 진주하기도 전에 뜻있는 지방의 청년들을 규합하여 치안대를 조직, 공비토벌에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선생은 당시 사찰유격대장이라는 위치에 앞장서서 대원을 독려하며 수십 회의 공비토벌작전을 치렀고 사살한 공비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공비들은 강백규 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혼비백산 삼십육계 줄행랑을 쳤다는 것이다. 선생은 1954년 7월 8일 당신의 집에 가다가 공비들의 습격을 받고 단도를 들어 적진으로 돌격했으나 적탄을 맞고 비통하게 전사했다.

선생이 가신지 7년이 지난 1960년 9월 20일 계남면민들은 자유, 민주, 평화를 수호하고, 지역의 치안질서 유지와 방위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선생의 애국애향 충정을 추모하기 위해 면사무소 내에 추모비를 건립했으나 그 후 선생의 생장지인 밤실로 이진하여 보존하고 있다.



강백규 전공비

강백규선생의 투철한 향토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해 계남면민은 군비지원과 자체성금으로 선생의 생장지인 장안리 입구에 1996년 8월 15일에 전공비를 건립했다.

2. 김봉기(金泰琪)

선생은 김해(金海) 후인(后人)이며 장수읍 수분리에서 거주했다.

선생은 장수군 산서면 만세시위의 주역이었으며 그 후에는 상해임시정부 군자금(軍資金) 조달책으로서 전남, 북을 돌면서 조달에 전력했다. 선생은 군자금을 마련하여 상해(上海)로 가던 도중 신의주(新義州)에서 일 헌병(日憲兵)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만년(晩年)에 장수읍 용계리에서 여생을 마쳤다.

3. 김상근(金相根)(1905~1973)

공(公)의 보명(譜名)은 진혁(鎭赫), 본관(本貫)은 경주(慶州), 계림군(鷄林君) 군의 후예이며 서기 1905년에 계북면 매계리 매골마을에서 김춘기(金春基 致元)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1930년경 일제 때에 전주사범학교(全州師範學校)를 졸업한 후 고창군(高敞郡)관내에서 보통학교 훈도(訓導)를 하며 당시 일제의 조선민족의 민족문화와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식민정책에 내심 불만, 조선어 시간에 조선역사를 들추어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경찰서 고등계에 불려가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고 여러 차례 혼이 났다. 8·15 광복 한 해 전에 진안 초등학교에서 장수 초등학교로 전근되었는데 선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민족혼을 일깨웠다. 특히 “논개”는 장수 출신으로 임란 때 진주남강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강에 빠져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다는 우리 조상의 의기(義氣)를 일깨워 주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교육자치제가 되면서 초대 장수군 교육감(長水郡 教育監)으로 선출되었다. 주논개의 생장지인 장계면 주촌에 논개 생장비각 건립과 장수남산에 의암사 건립 등 논개사적 보존에 앞장섰다. 초대와 3, 5대 교육장을 역임하는 동안 전국 최초로 학교림(學校林)을 조성하여 재산을 늘리게 했고 그로 인해 학교마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선생은 40여 년간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신조로 일관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물론 선생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선생을 대한민국의 페스탈로치로 불렀다. 선생은

1972년에 공로 퇴임을 했고 퇴임 몇 년 전에는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었다.

4. 김양한(金亮灌)

김양한의 관향(貫鄉)은 안동(安東)이요, 자(字)는 정명(正明)이라 하고 호(號)는 소룡(小龍)이라 하였다. 공(公)은 우의정(右議政) 휘(諱) 상용문충공(尙容 文忠公)의 후손으로 1849년(憲宗 15年)에 경남 곤양 용동촌(慶南 昆陽 龍洞村)에서 태어났다. 공은 어릴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신동(神童)이었다하며 10세 때는 사서(四書-論語, 孟子, 中庸, 大學), 삼경(三經-詩傳, 書傳, 周易)을 통달했다고 한다. 공의 탁월한 재질이 조정에 알려져 1867년에 중국 유학을 보냈다. 실학(實學)을 연구하고 3년 만에 돌아온 공은 천문지리(天文地理), 군사이론(軍事理論) 등을 연구하였다.

1883년에 공조좌랑(工曹佐郎) 요직에 제수되었고 1890년에 전원국사사(典圓局司事)에, 1893년에 삼남어사(三南御史)로 임명되었다. 그해 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상소를 냈다가 유배된 후 1895년에 사면(赦免)되어 경리국 제일과장직을 받아 양전세법(量田稅法)을 개정하여 농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1899년에는 육군 감독관이 되어 군(軍)에 농, 공, 병(農, 工, 兵)의 실습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케 하고 생산에 주력하였다. 1905년에 한·일 5조약(條約) 체결을 반대하는 수삼일의 단식투쟁을 하였고 1906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와 부동산법 조사위원이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이 되자 이곳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 은거하였다. 1918년 고종황제(高宗皇帝) 붕어함에 북망 통곡하며 피를 토하고 기절, 백약이 무효로 7년의 와병 끝에 1924년 향년 76세로 별세했다.

5. 김영숙(金永淑)

김공(金公)은 근세조선 태종 년대(太宗 年代) 분으로 벼슬은 사인(舍人)에 올랐다. 본관(本貫)은 함창(咸昌)이다. 판서(判書)를 지냈으며 장수지역의 함창김씨(咸昌金氏) 중시조(中始祖)로 알려진 김남택(金南澤) (월강사배향-月岡祠配享)공의 아들이다. 공은 학문을 가까이 하여 경서(經書)에 통달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은 도(道)를 닦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인(舍人) 벼슬을 버리고 두메산골에 은거(隱居)하며 흰 구름과 못 새들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였다. 당대의 학자인 한산(韓山) 이정재(李鼎在)는 공을 「높으신 선철이며 우리나라 큰선비이다」라고 격찬하였다.

6. 김영호(金永浩)

공(公)은 근세조선(近世朝鮮) 세종조(世宗朝)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냈으며 장수지역 함창김씨(咸昌金氏)의 중시조격(中始租格)⁶⁸⁾인 손재(遜齋) 김남택(金南澤)의 아들이다.

공의 벼슬은 태종(太宗)때 검상사인(檢詳舍人)까지 올랐으며 문장과 덕행이 당세에 유명하였다. 태종년대(太宗年代)에舍人 벼슬을 지낸 김영숙(金永淑)과는 형제지간이다. 공은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있는 백화산(白華山) 아래 은거(隱居)하면서 백화산의 이름을 따서 화산거사(華山居士)라 칭호하고, 노평천(蘆坪川) (백화산 계곡) 기암상(倚岩上)에 자락정(自樂亭)을 축조하고 봄에는 화조(花鳥)를, 여름에는 녹음방초를,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雪花를 노래하며 초야에 묻혀서 후학을 길렀다. 예조판서(禮曹判書)의 벼슬을 지냈으며 대 문장가인 한산 이정재(韓山 李鼎在)는 묘갈명에서 공의 지조를 얼음과 눈과 같다하였고 공의 인격을 산과 물의 맑음이라고 격찬하였다.

7. 김윤걸(金允傑)

태종년대(太宗年代)에 검상사인(檢詳舍人)을 지낸 김영호(金永浩)의 아들로 호(號)를 누암(樓岩)이라 했고 관향(貫鄉)은 함창(咸昌)이다. 벼슬은 세종(世宗)때 홍문정자(弘文正字)를 거쳐 중서사인(中書舍人)까지 지냈다. 사성(司成) 조충손(趙忠孫)은 공을 옥당화별(玉堂華閥) 사림거벽(士林巨擘)이라 칭찬했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집안과 빛나는 문벌을 가진 사림의 엄지손가락이라고 칭찬했다.

8. 김재희(金裁喜)(1913~1950)

1913년 계남면 양신에서 태어난 공은 임란(壬亂)때 왜군지휘관(倭軍指揮官)으로 나라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임금으로부터 모하당(慕夏堂)이라는 시호를 하사 받은 김충선(金忠善)의 12대 손이다. 공은 관향(貫鄉)을 김해(金海)로 불렀으며 일본중앙대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원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海金氏世譜)

9. 김창선(金昌善)(1848~?)

김창선의 자(字)는 성화(咸化)요, 호(號)는 추봉(秋峰)이다. 관향(貫鄉)은 김해(金海)이며 탁영(瀟纓) 김일손(金駟孫)의 후손이다. 문필(文筆)에 능하여

68) 장계면과 계남면에 걸쳐 있음

당시에 유명하였다. (金海金氏世譜)

10. 박성옥(朴性玉)(1902~1972)

박성옥선생의 호(號)는 연계(蓮溪), 관향(貫鄉)은 충주(忠州)요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감사(監司)의 13대손이다.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 훈도와 교사를 거쳐 교장을 역임하는 등 33년간 사도(師道)를 일관하면서 청백공무원의 사표가 되었고 「말은 더 곱게 일은 더 좋게, 몸은 더 크게」라는 교육이념을 실천하였다.

1960년에 녹조소성훈장을 받았다. (謝恩碑)

11. 백운비(白雲鼻)(1848~?)

자는 경은(景恩), 본관(本貫)은 수원(水原), 충숙공(忠肅公) 장(莊)의 후손이다. 문종조(文宗朝) 신미년(辛未年)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였고 임신년(壬申年)에 문과(文科)에 장원 합격하여 벼슬이 판서(判書)에 이르렀다. (水原白氏世譜)

12. 백응희(白應希)(1592)

호(號)는 우산(又山), 본관(本貫)은 수원(水原) 수문장(守門將) 언학(彦鶴)의 아들로 계남수문장(溪南守門將)에 재임 중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 국내가 위태로와 지자 의병을 모집하여 경북 상주, 선산 등지까지 진군하였고 이어 삼장사(三壯士)인 김천일(金千鎰) 최경회(崔慶會) 황진(黃進) 등과 함께 진주성(晉州城)에서 싸우다가 사태가 위급해지자 부하에게 말하기를 「성(城)이 살면 나도 살고 성이 죽으면 나도 죽을지니 충효(忠孝)가 겹전치 못할 것을 말하고 부디 내 뜻을 알아 돌아가거든 내 노모(老母)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수중(水中) 투신하였다. 전쟁 후에 조정(朝廷)에서 가선대부호조참판(嘉善大夫戶曹參判)을 증직(贈職)하고 행장(行狀)을 내렸다.

13. 박정주(朴政柱)(1871~1922)

공의 성은 박(朴)이요, 휘는 정주(政柱)요 자는 화용(和容)이요, 의사(義士)는 만인(萬人)이 함께 부르는 것이다. 그의 선조는 충주인(忠州人)으로 고려 부정(高麗副正) 휘 영(英)이 처음 본관(本貫)을 받았고, 10대를 전하여 휘 양(良)이 중시(重試)하여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지냈으니 공에게 13대조가

된다. 조(祖)의 휘는 문휴(文休), 호는 지산(池山)이니 참봉(參奉)이다. 효(孝)가 천인(千人)을 감동시켰으니 고기가 뛰어 나오고 새가 쪼아대는 변이(變異)가 있었다. 고(考)의 휘는 홍규(洪奎), 호는 남파(南核)이니 진사(進士)이며, 실�효(實孝)가 있어 손가락을 끊어 피를 넣어드렸다.

진사공이 삭녕 최공(朔寧崔公) 현구(炫九)의 딸에게 장가들어 고종 신미(高宗 辛未 1871년) 정월 27일에 공은 산서(山西) 오룡리(五龍里) 집에서 낳으니 체구는 보통사람에 넘지 않으나 담력(膽力)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뛰어나고, 하루에 말짬을 먹고 나무 뽑기를 풀 이삭 뽑듯 하니 이 때문에 일본 순사 5-6인이 반드시 그의 뒤를 따라 다녔으나 공이 너그럽게 관계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시(詩)와 예(禮)를 배우고, 혹 수 백리 밖에서 쌀을 지고 와서 봉양하며, 만일 맛있는 것을 얻으면 문득 싸가지고 와서 드리니 향인(鄉人)이 모두 효자라고 하였다.

나이 49세 되던 기미(己未)년에 만세(萬歲) 부를 듯으로 진사공에게 고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복(服)을 벗으니, 두 아우가 대문 밖까지 기쁘게 보내 드리고 부인은 조용히 안에 앉아 있었다. 이에 산서로 나아가 맨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 시장 가던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세하니 그 위세가 불만하였다. 이보다 앞서 3월 5일에 장수읍내 계획이 미수(未遂)로 끝났는데 이상일 공(李相一 公)의 집이 산서에서 가깝고 수백 명을 모을 만하기 때문에 전야(前夜)에 여기로 모였다 한다. 드디어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대구에서 재판하는 날 강개(慷慨)한 선비들이 전국에서 모두 왔는데, 공이 소리를 높여 항변(抗辯)하되 “천지(天地) 달 밝은 밤에 우리 집만 캄캄하구나. 내가 내 방에 앉아 내가 내 집을 지키는데 밤중에 도적떼가 들어와서 소를 끌어내고 쌀을 저내고 술을 빼고 그릇을 거두고 하여 모조리 싣고 대문을 나서더라. 이럴 때 내가 나가서 소리를 쳐야 옳겠느냐? 잠자코 앉아서 보내줘야 옳겠느냐?” 하는데 위엄 거동이 스스로 늠름하니 방청인(傍聽人)들이 통쾌(痛快)히 여겨, “조선에도 사람이 있다.” 하고 외쳤다.

실행 18개월을 받고 나와 몇 달을 신음하다가 세상을 뜨니 신유(辛酉 1921년) 9월 24일 향년 겨우 51세였다. 백운리(白雲里) 동산(洞山) 해좌(亥坐)에 장사했다. 부인은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노식(魯植)의 딸이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남매(男妹)를 길렀다. 을해(乙亥)와 경진(庚辰 1940년) 2월 5일이 그의 생(生)과 졸(卒)이고 묘는 왼쪽에 쌍분(雙墳)으로 모셨다.



박정주 추모비

아들은 현덕(浩德)이고 경주(慶州) 김기봉(金基鳳)은 사위이다. 현덕의 아들은 봉기(鳳基)이고 딸은 한명이다. 광복 후 전국공로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장수읍 대성리 필덕마을 노변에 추모비를 세웠다.

14. 송희명(宋希明)(1823~1893)

자(字)는 응오(應五) 호(號)는 유초(裕樵) 관향(貫鄉)은 연안(延安)으로 대사성(大司成) 광언(光彦)의 후손(後孫) 의헌(義憲)의 아들이다. 철종 갑인(哲宗 甲寅 185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 좌랑(佐郎) 지평(持平) 상운도찰방(祥雲道察訪) 정언(正言) 등을 역임했다. 천천면 평지에서 출생 했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평지(坪地)의 송급제(宋及第)로 통한다. 그래서인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로 따져서 평지의 동네 터가 좋다고 전한다.

15. 안필원(安弼遠)(1916~?)

자(字)는 성도(咸道) 호(號)는 유정(柳汀) 본관(本貫)은 광주(光州) 가선대부(嘉善大夫) 효응(孝應)의 아들이다. 천성(天性)이 학문(學問)을 좋아하여 문사(文詞)가 넉넉하되 출세할 뜻이 없어 산간에 은거, 도를 닦고 덕을 기르자면 곳에서 까지 선생의 고매한 인품을 흠모하여 찾아드는 제자들이 많았다. 제자들 중에는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16. 양재형(梁在瀾)(1871~1952)

자는 자윤(子允)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일찍이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문하에서 시문과 필법을 배워 천재적 소질을 발휘하였다. 매천(梅泉) 황현(黃玑)이 그의 시(詩)를 칭찬하여 「남원백년에 이런 작품이 없었다」하며 청사(晴蓑 :개인날 도롱이)라는 호를 주었다. 지금의 산서 땅은 그 일부가 당시에는 남원 땅이었다.⁶⁹⁾

17. 옹금이(卮金怡)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으로 패주 북상하던 공산군은 지리산, 장안산, 팔공산, 덕유산 등으로 은신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군경과 대치하면서 양민을 학살, 재산을 약탈하였다. 이때 공은 향토유격계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 당시에는 옹금이 부대하면 그 이름만으로도 공산군이 혼비백산하여 도주했다고 할 만큼 신적인 존재였다.

69) 南原梁氏世譜

1926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에서 출생한 공은 1945년에 경찰에 투신하여 1950년 6월 25일 공산 남침을 무주에서 맞았다. 동년 7월 24일 장계 전투에 참가했던 공은 전투에 패전하고 덕유산에 은신하였고 9월 28일 수복 후 하산, 장수에서 경찰에 복직하였었다. 계북 지서에 근무하면서 공산군과 전투, 그 용맹성이 인정되어 의경 중심의 향군(鄕軍)에 편입 대장(隊長)직을 맡았다.

공은 장수군을 중심으로 무주, 안성, 진안, 동향, 백운면, 남원, 운봉, 아영, 산내, 함양, 백전, 서상, 서하 등지를 두루 돌면서 전투하였고 공산군 1,300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공의 전투부대는 향토의 의용부대로서 운영상 의경에 편입되었기에 오히려 빛나는 의용군(義勇軍)의 참뜻이 빛을 잃을 듯한 정감도 있다.

향토부대는 유격전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공산군 복장과 공산군으로 위장하여 신출귀몰한 신병(神兵)이라고 까지 말하였다. 다시 말해 이 고장 장수수복의 제1공로자이며 용감한 무인(武人)이었다. 공은 화랑무공훈장과 방위포장 등을 받았다. 공은 1977년 3월 4일 51세를 일기로 별세했는데 공의 빛나는 업적은 천추(千秋)에 기리 전하여 질 것이다.

18. 유동언(柳東彦)

선생의 관향(貫鄕)은 전주(全州), 서울 동성중학교 재학중 부친의 별세로 학업을 중단, 고향으로 돌아와 노조부의 여생을 살피며 가업의 계승에 진력하였다.

선생은 기골이 장대하고 기운이 과인했었으며 정의로운 성품의 소유자였다. 청장년 시절에 전국대항정구대회에서 우승하여 장수고을을 전국에 알리기도 하였고 씨름 역시 기운과 기술을 겸비하여 각처 씨름대회에 출전, 필히 황우(黃牛)의 부상도 수차례 받은 바 있고 유도도 2단급이었다. 또한 1949년에 사재를 들여 장수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때 선생은 3천여 평의 학교 부지와 건물일체, 교육경비, 천천면 비룡리 소재 임야 5백여 정보를 기증한 교육자였다. 선생이 아니었던들 장수고장에 1960년경 예나 중학교가 설립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며, 10여 년 전부터 중학교에서 자격을 얻고 사회에 참여하여 구제받은 이 고장 출신 남녀가 수천에 달했다고 본다면 선생의 사업은 얼마나 위대하였는가 알 수 있다. 선생은 농촌 근대화의 참뜻도 남달리 선감했다고 하겠다.

유동인공적비



1940년 장수읍 송천리 후산에 현대식 축사를 건립 닭, 개, 돼지, 말 등 당시에는 이름도 모른 신종(新種)들을 들여다 사육(飼育)하면서 주민에게 계몽도 대단했는데 오늘에야 선생의 참뜻이 이해가 간다는 것이다. 이름 하여 유축농장(有畜農場)이라고 하였다. 또 무역에도 대단한 능력가였다.

1944년에 염전(鹽田)개발, 홍콩에 수출한 경력업적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1946년경에 무역이란 감히 상상키도 어려운 일이었다. 선생은 지역의 대소사를 막론하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 시행하였다. 1950년 공산(共産)난리를 당하여 몸을 피하지 못하고 은신 중 횡사하였다.

선생의 교육사업공적비(教育事業功蹟碑)는 현재 장수중학교 화단가에 세워져 있다.

19. 이근우(李根雨)

공(公)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안양군(安陽君) 연(衍)의 후손으로서 석구(錫九)의 3남으로 산서면 신창리에서 태어났다. 산서면장을 두 차례나 역임하면서 수리시설(水利施設) 시장(市場)건설, 학교 설립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바 지대하며 1960년 제3대 도의원(道議員)에 당선 되었다.

20. 이길현(李吉鉉)

선생의 관향은 장수이며 장수에서 태어났다. 당시 가혹(苛酷)한 일제는 우리 민족말살정책으로 말과 글,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을 산이나 물로 데려가 가르쳤는데 일제에 발각되어 옥고(獄苦)를 치르던 중 한글학회까지 연결되어 3년의 실형을 겪고 석방되었으나 옥고 중 심한 고문으로 발병, 결국 사망하였다. 재물과 명예에 매도되어 조국과 민족도 모르는 친일파(親日派)가 있었지만 선생은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찾기 위해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바쳤다.

애국하고 애족하는 마음이 업(業)에 따라 크고 작을 수 없다. 선생의 애국심과 애족심은 길이 기리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의암의 생장향 수명비에 매몰내력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분이기도 하다.

21. 이대유(李大耆)

선생의 관향은 경주(慶州)요, 신라좌명 대신인 이안령의 후손으로 휘는 대유, 호(號)는 활계(活溪)이다. 성균관(成均館)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종윤(綜胤)의 아들로 1540년(中宗 35년)에 태어났다. 선생을 세상에서 호남의 은일군자(隱逸君子)로 알았다. 어릴 적부터 영특하여 학문이 높았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별세하자 편모(片母)를 위하여 벼슬도 버리고 초택(草宅)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임진왜란을 당하자 만헌공(晩軒公)과 창의소(倡義所)를 차리고 의병을 초모, 군자금을 조달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만헌을 의병장으로 정하고 남원성 구원에 나섰다. 구국전선(救國戰線)에 나선 공은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였다. 산서면 하월리에 지금당(知今堂)을 창건하고 후예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의 덕과 학문이 세상에 전해지자 공의 문전(門前)으로 선비들이 모였다. 암행어사 목장흠(睦長欽)은 공의 학식과 덕망에 감탄, 조정에 장계를 올려 사옹 간원참봉(司饔諫院參奉)의 직첩이 내려졌으나 나서지 않았다고 전한다.

선생은 향촌(鄕村)언덕에 지양정(止陽亭)을 세우고 향약강령(鄕約綱令)을 실천 하고 보은(報恩)의 김충암(金忠巖), 영동(永同)의 정상강(鄭商江), 무주(茂朱) 박비암(朴秘巖) 당대의 유덕자(有德者)를 규합하였다. 선생은 1609년(光海主1) 70세를 일기로 별세, 산서면 하월에 사당(祠堂)을 세우고 위패를 모셨다.⁷⁰⁾

70) 活溪遺稿 鴨溪書院記
長水誌

22. 이병란(李炳蘭)

근세조선(近世朝鮮) 말엽의 사람으로 자(字)는 자옥(子玉) 호(號)는 일우(一迂), 본관(本貫)은 연안(延安)이며 석흥군(碩興君) 곤(坤)의 9세손이다. 인성(人性)이 온후하고, 덕망이 높고 학문이 깊었으며 특히 서예가 뛰어났다고 한다.⁷¹⁾

71) 延安李氏世譜

23. 이승평(李昇平)

장천 부원군(長川 府院君) 이임간(李林幹)의 후예로 휘는 우(佑)요, 자(字)는 광팔(光八) 호(號)는 지산(芝山)이다.

1393년(太祖 2년 癸酉 太宗朝)에 추충분의익재(推忠奮義翊戴) 좌명공신(佐命功臣)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책봉되었으며 1419년(世宗 1년 己亥)에 대마도(對馬島) 정벌의 도제찰사에 임명되어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한 이

종무(李從茂)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세종(世宗)에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로서 벼슬길에 올랐으나 1453년(端宗 1년癸酉)에 사직하고 장수현 계북면 양악리 서봉황산 밑 장천부원군 이 임간에게 고려왕조(高麗王朝)에서 하사한 초옥(草屋)을 찾아 정주하였으며 장수현 내의 봉토(封土)를 관리하면서 장자(長者)와 족하를 정주시켰다. 공은 평안우도절제사(平安右道節制使) 지중추부사(知中樞副使)를 역임하였으며 재직 중 청백리(淸百吏)로서 이름이 높았다.

24. 임철규(林哲圭)

조선조 말부터 일제강점기 사람으로 자는 자명(子明) 호는 화사(華史)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부계(扶溪) 전병순(田秉淳)의 수제자로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璫), 간재(艮齋) 전우(田愚) 등과 교유(交遊)하면서 깊은 학식을 얻었다. 화사문집(華史文集) 5권이 있다.⁷²⁾

25. 장구현(張球炫)(1914~1971)

본관은 흥성(興成)이며 취헌(翠軒) 장안택(張安澤)의 손자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다년간 변암 면장을 역임하였고 제2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후학교육(後學教育)이 지역발전의 첩경이라고 생각한 선생은 변암면에 중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심, 지방의 유지들을 설득 중학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초대 위원장이 되었다.

26. 장안택(張安澤)

공(公)은 1863년(哲宗 14년 癸亥) 8월 6일 변암면 노단리에서 흥성인(興咸人) 동몽교관(童蒙敎官) 석룡(錫龍)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자(字)를 사유(士維) 호(號)를 취헌(翠軒)이라 하였다. 공은 열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 홍규(鴻奎 南樂 (남요)) 공으로 부터 예의범절과 학문을 닦았으며 세칭 장부자(張富者) 집안의 종손(宗孫)으로 적선을 많이 하며 덕을 쌓았다.

1894년 동학혁명이 나자 관군에 쫓긴 동학군들이 장수지방에 까지 밀려와 변암면은 그들의 집결장소가 되면서 민폐가 적지 않았는데 이 때 공은 동학군에게 주효(酒肴)를 베풀어 그들을 달래고 또한 관군에게도 이와 같이 하자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다.

가을에는 집안에 도둑이 들어 벼짚을 지고 달아나다 문간에 넘어지는 것

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밀어주었는데 그 도둑이 며칠 후 떡을 가져와 잘못을 뉘우치는 체 했는데 그 떡에는 독이 들어 있어 공을 해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에도 그를 용서, 그는 마을을 떠나 산적 두목이 되었는데 공이 성묘를 가다가 산적들에게 붙들리자 공을 알아보고 잘못을 빌며 살려 보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⁷³⁾

27. 장현경(張顯慶)

공(公)의 관향(貫鄉)은 흥성(興成), 자(字)는 사응(士應), 호(號)를 추담(秋潭)이라 하였으며 1730년(英祖 6년 庚戌) 12월 12일 변암면 노단리에서 휘(諱) 보명(普明)의 아들로 태어났다. 8세가 되면서 조부(祖父) 변와공으로부터 학문을 익히니 일찍이 문리(文理)에 밝아 경전(經典) 성리(性理) 염락이(理氣)에 능통하였다.

1752년(英祖 28년 壬申)의 정시(庭試)에 급제하여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으로 관로(官路)에 나갔으며 홍문관(弘文館) 박사(博士)를 겸하였다.

이어서 호조좌랑(戶曹佐郎) 연일현감(延日縣監), 병조, 형조좌랑을 거쳐 호조, 예조, 공조의 정랑을 역임하고 춘추관(春秋館), 기주관(記注官), 편수관(編修官)에 승진하였다. 그러나 1796년(正祖 20년 丙辰)에 뜻밖에도 삼례찰방으로 좌천되었으나 부임한 후 곧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1805년(純祖 5년 乙丑) 7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공은 1775년(英祖 51년 乙未) 겨울 춘추관(春秋館) 사관(史官)으로 임시 중 영조대왕(英祖大王)이 정청에 나와 잣죽과 꿩 구이를 내려 같이 들면서 을시(律詩)를 지어 올렸는데 영조대왕이 크게 기뻐하며 사언팔구(四言八句)의 시(詩)를 지어 친히 붓으로 써서 하사하였다. 영의정 김상복이 이를 알고 예조에 기록한 후 첩자(帖子)를 만들어 주자 공(公)은 1799년(正祖 23년) 향리(鄉里)에 어서각(御書閣)을 세워 이를 보존하게 하여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변암면 노단리 방생) 공은 부모에 효성이 지극했다. 부친이 별세하자 3년간 10리가 넘는 묘소에 성묘하였으며 청렴결백하여 이도(吏道)를 중히 여겼다. 67세 되던 해인 1796년 공은 삼례찰방으로 좌천되었는데 이때 사미인곡(思美人曲) 32 구를 지었으니 공의 문장력(文章力) 또한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73) 翠軒 墓碣銘, 南樂 墓碣銘, 興成張氏譜

28. 전영대(全永大)(1859~1911)

자(字)는 덕수(德守), 호(號)는 청파(靑城), 관향(貫鄕)은 천안(天安)이며 문평공(文平公) 문식(文軾)의 후손이다. 평소에 호방한 뜻이 있어 동지들과 제갈량(諸葛亮) 사당(祠堂)을 세우고 고금역사를 토론하였다 일제가 시작되어 도지사(道知事) 이두황(李斗璜)이 장수 초도순시 연설에서 쇠가죽 개가죽처럼 개혁할 것을 역설하자 공이 앞에 나아가 팔을 걷고 항의하기를 「소나 개는 개혁할 것이나 호랑이와 수달피도 개혁해야 하느냐」고하자 서술이 퍼런 지사 이두황도 이 대담한 질문에는 답변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29. 정존성(鄭存聖)

고종년대(高宗年代)에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했다. 관향(貫鄕)은 동래(東萊)이고 호(號)를 양촌(陽材)이라 했으며 동래군(東萊君) 난종(蘭宗)의 후손(後孫)이다. 한글 학자이며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인승(鄭寅承) 박사의 고조(高祖)가 된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출중했으며 덕망이 대단했고 지방 풍속을 선도하기에 앞장섰다. 서민들의 세(稅)부담이 과중함을 당시 장수현감(長水縣監) 류후조(柳厚祥)에게 진정 하여 감면의 혜택을 주었으며 주민들은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류후조 현감도 공의 높은 인격과 덕망을 찬양했으며 현감이 내직(內職)으로 들어가 우상(右相)으로 있으면서 공을 특계(特啓)하여 기사(耆社)에 들고 증직판서(贈職判書)까지 되었으며 공의 나이 98세였다.⁷⁴⁾

74) 東來鄭氏世譜, 三綱錄

30. 정환(丁煥)

자(字)는 용晦(用晦), 호(號)는 회산(檜山), 관향(貫鄕)은 창원(昌原), 오호군(五護軍) 연방(衍邦)의 후손인 감역(監役) 세명(世明)의 아들이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별시에서 차석(次席)으로 합격하여 청장관(靑狀官)과 경상도지사를 역임하였고 효우문학(孝友文學)과 정야방강(正夜方剛)하였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묘갈명을 지었으며 영천서원(寧川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檜山集) 유헌(遊軒) 정황공(丁煥公)의 백씨(伯氏)이다.

31. 조병로(曹秉魯)(1879~1943)

조공(曹公)의 호는 동호(東湖)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또한 부친은 윤승(潤承)이다. 당천(唐川) 이한용(李漢龍)에게 수학하여 시문(詩文)에 능(能)

하였고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다.⁷⁵⁾

75) 昌寧曹氏世譜

32. 최성식(崔性植)(1929~1950)

본관은 전주(全州)요, 만육(晩六) 최양의 후손(後孫)으로 선비 기종(基鍾)의 아들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 호국군(護國軍)에 자진 입대하여 복무에 충실하다가 6·25동란을 당하자 동지 몇 사람과 비밀리에 공비소탕을 꾀하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공시절의 분주소에서 즉각 체포, 문초했으나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히죽히죽 웃는 등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자 심한 고문 끝에 방면했다. 인공시절 어느 날 억지로 강연석에 끌려갔다가 강연이 끝난 뒤 소련수상 만세를 부르는 광경을 보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 역적 놈들아” 하고 본부를 향해 고함을 지른 뒤에 대한민국만세를 부르다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그때 나이 스물두 살이었다.⁷⁶⁾

76) 華溪集

33. 정원길(鄭元吉)

공은 경주인으로 시조 지백호 선조의 55 세손이요, 고려 말 영의정을 역임하신 문헌공 정현영의 9대손이며, 이조판서를 지내신 현호공의 5대손이다. 그리고 동래부사를 역임하셨던 정삼검의 장남으로 정읍군 칠보면 시산리에서 출생하였다. 17세 때 조실부모하고 종묘를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적의 침범으로 진주성 전투에 참전하셨던 당숙 정윤근 군기사 주부께서 전사하시니 충효 이자(二字)를 가훈으로 하는 애국 충정과 당숙의 전사에 비통 분개하여 복수의 집념이 서려있던 차 1597년 정유재란이 재발하여 왜적이 남원까지 진격 입성하였다는 전문을 받자 원수를 무찔러 반드시 진충보국 하겠다는 강인한 신념으로 백의거의 참전을 결행하였다.

아들 6형제 중 계자 논문만은 가계봉사를 위하여 남겨두고 인문 등 5형제와 족제창문 그리고 마을 의사 수십 명을 모병 즉술하여 남원전지에 당도 이복남, 정기원 장군과 합세하여 용전분투하였으나 죽창과 궁시로 맞선 아군에 총으로 대항하는 왜적에는 불가항력으로 전멸케 되니 이것이 정유년 남원만인옥쇄의 대전란이었다.

전사부음을 접한 계자 논문은 남원 전적지에 당도하여 시신을 거두려 하였으나 적산을 이룬 부패된 시체 중에서 그 어찌 식별이 가능하랴. 통곡 혼

번암 사암리의 충의비

77) 상소 원본중중 보물로
보관중

아들 논문은 동 유품을 수득 봉안하여 이곳 사암리 24번지내 선산에 초혼장을 봉분하고 봉사함에 이르렀다. 그 후 공의 충절이 널리 알려지자 남원 향교 유생 30여명이 사실을 확인 경탄하고 포훈장을 작성하여 어사의 열사 판정을 받아 조정에 상소⁷⁷⁾하여 선무원종 이등공신으로 서훈되어 묘비와 족보에 충절을 등재하고 제각을 세우고 추모하고 있으며 온 세인들로 하여금 위대한 애국열사로서의 숭앙을 받고 있다.

남원의 용성지에도 열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공과 부인의 묘소는 번암면 사암리에 있으며 묘전(墓前)에 충의비(忠義碑)를 세웠고 감모제(感慕齊재실)도 근처에 있다 자손들이 번암면 일대에 세거하고 있다.

34. 박영춘(朴永春)(1859.12.12~1920.12.6)

장수읍 용계 사람으로 천도교(天道敎)인이며 밀양박씨이다.

1919년 3월 2일 장수읍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당시 장수읍 천도교 교구장으로서 3월 2일 오후 남원시 보절면(南原市 寶節面)에 사는 장경일(張京日)로부터 서울에서 가져온 1백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았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의 독립만세 시위에 대하여 전해 들었다.

그는 이날 즉시 최영식(崔永植), 신동문(辛東聞), 장재만(張在萬), 양일표(梁日杓), 빈영섭(賓永燮)등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고 장수면 용계리(龍溪里), 장계면(長溪面), 천천면(天川面) 면사무소 게시판에 부착하게 하여 장수 군민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이후 사실을 눈치 챈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이해 4월8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1년형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⁷⁸⁾ 당시 일본군을 피하기 위하여 무구덩이에서 1주일간이나 은신하기도 했다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 후 군수 도지사 표창도 추서되었다. 현재는 초중학생들의 애국사상 고취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며 매년 3월 1일과 8월 15일 학생들이 묘역을 단장하고 있다.

78) 독립운동사(국가보훈
처) 3권544, 545면

제 2절 효자(孝子), 효부(孝婦)

1. 김경손(金敬孫)

본관(本貫)은 함창(咸昌)이며 승지우상(承旨雨祥)의 아들로 조선조 문종(文宗)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였고 아버지가 별세하자 예(禮)와 슬픔을 다하였다. 어머니 병환에 8년 동안 지성을 다했으며 모친이 별세하자 묘전(墓前)생활(生活)중 시묘(侍墓) 3년에 죽으로 연명했고 집에도 오지 않는 효성을 베풀었다.

나라에서 지능참봉(智陵參奉)에 제수하였고 천천면 삼고리에 효자비각(孝子碑閣)을 세웠다.

2. 김선후(金善厚)⁷⁹⁾

공의 관향(貫鄉)은 김해(金海)이고, 자(字)는 덕화(德和), 호(號)는 남사(南史)이며 탁영(탁염) 김일손(金駟孫)의 후예이다. 어렸을 때 겨울 공(公)의 부친이 병석에 누웠는데 잉어를 원함으로 얼어붙은 냇가에 가서 하늘에 빌자 잉어가 뛰어나와 바쳤다는 출천지효자(出天之孝子)이다.

숙종임금으로부터 정여(旌閭)가 내려서 계북면 어전리(於田里) 입구에 건립했으나 지금은 철폐되었다.

3. 김정중(金定中)

자(字)는 치능(致能) 호(號)는 묵재(默齋) 본관(本貫)은 울산(蔚山)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12대손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의 뜻을 받들었으며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절지수혈, 입에다 드리워 10일간 연명했다. 선생은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선생의 문인으로서 예학에 힘썼으며 조봉대부동몽교관(朝奉大夫童蒙教官)에 제수되었고 한일합방 후에 입산하여 은거,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4. 김학수(金學秀)

관향이 연안(延安)이고 문청공(文淸公) 자지(自知)의 후예이다. 스스로 어버이 섬기기를 알아 평소 거스를 없이 효행을 다하더니 부친의 병환에는 하늘에 빌어 자신이 대신하기를 빌었고 변을 맛보며 구환 할 뿐 아니라 본인의

79) 본권 제7편

9. 효자문과 잉어산

음식을 감하고 병을 고치고자 단지주구(斷指注口)하여 수일의 명을 연장하고 거상 3년 동안 계치(啓齒)를 보이지 아니 하였다. 산서면 마하리 평촌마을에 효자비가 세워져 있다.

5. 김학신(金學信)(1862~1940)

공(公)은 자(字)를 흥로(興魯), 호(號)를 호은(湖隱)이라 했으며 관향(貫鄉)은 경주(慶州)이고 계림군(鷄林君)(재숙공齋肅公) 군(菌)의 후예(後裔)로서 근세조선 말엽 철종(哲宗) 13년(서기 1862년)에 계북면 매계리 삶다리(狹脚: 신기)마을에서 김낙식(金洛植)(嘉善大夫)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세가 어려웠으나 공을 잉태(孕胎)하면서 부터 일들이 잘 풀렸다고 하며 장년기(壯年期)에 접어들면서 자수성가하여 약간의 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어려서 가난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없이 사는 사람의 세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부인(婦人) 거창신씨(居昌愼氏)와 더불어 10여 평이 넘는 이간장방 사랑채를 거처 하면서 매일같이 경향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묵어가기 위해 들린 2-30 명의 과객(過客)과 걸인들에게 숙식(宿食)은 물론 옷 없는 이에게는 옷을, 신 없는 이에게는 신을, 노자 없는 이에게는 노자를 주어서 보냈으며 과객중 갈 곳이 없어 한 달이고 일 년이고 묵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의·식·주(衣食住)를 제공했다. 또한 춘궁기(春窮期)가 되면 가난한 인근 동민들에게는 썩을 뜯어 오라해서 썩떡잔치도 하고, 양식도 나누어 주며, 대여한 곡식을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기민휼궁(飢民恤窮)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공의 부부는 80세가 넘도록 장수하였는데 살아생전 홀궁구빈(恤窮救貧)을 낙으로 삼고 인애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근동민은 말할 것도 없고 먼 곳까지「만인적선(萬人積善)의 김교관택(金敎官宅)」이라는 칭송의 소리가 자자했다. 정축년(1937년)공이 별세하기 삼년 전에 공의 신세를 졌던 각지의 과객걸인 수백 명이 회동해서 십시일반(十匙一飯)구걸한 돈을 모아 공의 덕(德)을 기리기 위해 금석에 새겼다. 비(碑)는 수 십리 밖에서 제작했다고 하며 자신들이 운반해서 공의 생장지인 삶다리 마을 어귀에 세웠다.

비(碑)의 정면에는「전교관 김공흥로적선비(前敎官 金公興魯積善碑)」라고 새겼으며 우측에는「緯積閔休 遺風尙紆 銘石尙檣 後生余感」(공적이 크고 아름답다우니 끼친 바람이 널리 퍼졌다. 금석(金石)에 새겨 상고해 보니 후생들이 감동한 바 크다) 좌측에는「恤窮救貧 世稱活佛 進退有度 周旋可則」(기민

에게 공함을 면케 하고 가난을 구제하니 세상에서 산부처라 일컫고 나가고 물러감이 법도가 있고 행동이 가히 본받을 만하다.)

이렇듯 공의 덕을 칭송해서 비(碑)를 세운 사람이 「浴恩散人」으로 각자(刻字)돼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바로 과객(過客)과 걸인으로서 수비자(塹碑者)를 보더라도 공은 홀궁구빈(恤窮救貧)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효의 근본인 출필고(出必告), 반필면(反必面), 혼정이신성(昏定而晨省)을 거른 일이 없었으며 친환(親患)이 위중(危重)할 때 허벅지살을 베어서 피를 입에 넣어 며칠을 연명케 하기도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자 6년간 시묘살이를 하여 유림(儒林)에서 내린 효행 상(孝行賞)을 받기도 했다.

공(公)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으며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해서 벼슬은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이르렀다. 향간(巷間)에서는 공을 김 별감 이라고도 불렀는데 별감이란 명예직으로 현감이나 관찰사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은 학문과 덕망이 높았기 때문에 당시 장수현감이 자주 김 공을 찾아 제반사에 자문을 구한데서 붙여진 별명 같기도 하다.

지금도 장수팔경의 제1 경인 매산청풍 송대(梅山淸風 松臺)에는 공이 원근(遠近)의 많은 선비들을 초청, 시회를 가진 뒤 여흥으로 매천(梅川)에 있는 용암(龍巖)에 낚시 드리우며 천렵하던 자욱이 있다. 공이 천수 80세에 별세했을 때 상여 뒤에 공을 추모하는 시문을 적은 천여 장의 만장(輓章)이 십리나 이어졌다고 전한다.

6. 김흠(金肅)

월강사에 배향되어 있는 판서 김남택(金南澤)공의 후예로 본관(本貫)은 함창이며 승지우상(承旨雨祥)의 현손(玄孫)인 응상(應相)의 아들이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이 병을 얻어 위기에 이르자 대변(大便)을 맛보고 병세를 짐작했으며 70고령의 노모가 득병하여 위중하자 절지 수혈로 2년간을 더 살게 했다. 그 지극한 효성이 조정에 알려져 숙종(肅宗)께서 명하시어 천천면 삼고리에 정려(旌閭)를 건립했다. 현손(玄孫)에 이르러 절손(絶孫)되었고 방손(傍孫)인 회축, 상용, 상덕, 유세 등이 재산을 모아 다시 천천면 삼고리에 정려(旌閭)를 세웠다.⁸⁰⁾

80) 旌閭記文

7. 모순(牟恂)

함평인(咸平人)으로 자(字)는 순지(恂之)이며 호(號)는 절강(截江)이다. 포은(圃隱) 정몽주 선생의 문인(文人)으로 1417년(태종 17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검상(檢詳), 사인(舍人), 좌사간(左司諫) 등의 관직을 거쳤다. 효심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병환에 변을 맛보았고 하늘에 기원하여 영험(靈驗)을 얻기까지 했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장사 행렬이 강을 건너려 할 때 물이 불어 곤경에 처하자 하늘에 우러러 크게 울자 강물이 갈라져 무사히 장례를 마쳤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효자의 마음에 감응하여 하늘이 도왔다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조정에서 예조로 하여금 효자려(孝子閭)를 건립하게 하였다.

8. 박귀천(朴貴千)

밀양인(密陽人) 밀성군(密城君)의 후예로 박동(朴東)의 아들이다. 효행이란 사람마다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불효하기 위해서 효를 기피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부모께 효한다는 그 자체가 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부모를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일념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효행을 인륜의 으뜸이라고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여 치료하였으나 효험 없이 위독해 지자 단지수혈(斷指輸血)로 회생하게 하였다. 물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에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 봉양하였으며, 꿩고기를 원하시자 꿩 사냥을 나가려 할 때 산 꿩이 집안으로 날아들어 잡아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유림들은 이 가극한 효성을 나라에 상소하여 명정의 특전을 받게 하였다. 천천면 월곡리 대로변에 효자각이 있다.

9. 박영호(朴永鎬)

밀양인(密陽人)으로 호(號)를 일남(驛南)이라 하며 교관(敎官), 상휴(尙休)의 아들이다. 조부인 고평공(顧豐公)의 병환이 위독하여 경엽과 명의를 요구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씨부인(李氏婦人)과 더불어 엄동에 칠성단을 모으고 천지신명께 기도하자 7주야(晝夜)만에 현몽, 멀찍한 곳에 샘물이 있고 그 샘 안에 연화(蓮花)가 피었으니 구하여 약으로 복용토록 하라고 하였다. 꿈을 깬 뒤 바로 그 샘을 찾아가 보니 과연 기이하게도 연꽃이 피어 있었다.

그 꽃을 따다가 약으로 쓰자 조부(祖父)의 병이 완치 되었다. 원근(遠近)에

퍼진 이 사실을 선비들이 나라에 상주, 조정에서 삼강록(三綱錄)에 상재(上裁)토록 하여 길이 전래되었다.⁸¹⁾

81) 三綱錄 參照

10. 신석좌(申錫佐)

조선전기의 효자로 전북 장수군 노곡리 출생이다.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관직이 직제학이며 대광보국승록대부로 고령부원군에 봉해진 휘 장의 후손이요 대사간 휘 말주의 14 세손이며 판서를 지낸 휘 홍의 13세손으로 자는 석모다. 공은 효성이 지극하여 연중 물고기와 산짐승을 잡아 부모를 공경하였으며 공의 나이 37세 가을 부친이 병석에 눕게 되자 각처에서 명약을 구했으나 약효를 보지 못했다. 공께서는 절지하고 허벅지 살까지 도려내어 진탕 복용시키자 회복하여 13년간을 연명하여 80세까지 향수를 누리게 하였다. 그의 효 실천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으며 그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런 사실을 유림들과 전라도 관찰사의 상소와 관문으로 조정에 천거하여 고종께서는 동몽교관조봉대부의 교지를 내리면서 정려를 세워 그 뜻을 기리 전하도록 하였으나 잊혀 오던 중 2008년 봄에 노곡 종친들과 후손들에 의거 효행 비를 장수읍 노곡리 신촌 구산과 노곡 대리 뒷산 묘역에 세우고 묘역을 정비하면서 그 훌륭한 효 정신이 후손에 살아 숨 쉬게 되었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의 관문과 장수 유생들의 상소문, 교지와 장수군지, 장수향교지, 삼절의 고장,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호남인물 기초자료, 고령신씨 세보에 그의 효행이 기록되어 전해져오고 있다.

11. 신흥구(申弘求), 혁구(赫求), 병구(炳求)삼형제

조선전기의 효자로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출생이다. 본관은 고령으로 관직이 직제학이며 대광보국승록대부로 고령부원군에 봉해진 휘 장의 후손이요 대사간 휘 말주의 15세손이며 판서를 지낸 휘 홍의 14세손이고 석좌공의 아들 3형제다. 흥구 공의 자는 종구이다.

삼형제는 부의 효 실천을 배워 부께서 병석에 눕게 되자 흥구공은 손가락을 찢어 피를 입에다 넣어드리고, 혁구 공은 넓적다리를 베어서 국을 끓여드리고, 병구공은 다리부분 살을 베어 삶아서 드리는 등 지극정성으로 봉양함으로써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그의 행적이 도내 유장의 발문과 향교지에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음에 몇 대 사이에 한 명의 효자도 어렵거늘 하물며 효자에게서 또 다시 세 명의 효자가 나왔으며 이는 참으로 효자는 하늘에서 내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가르쳐서는 될 수 없다고 3형제의 효행을 극찬하였다.

12. 양근(梁根)

양근(梁根)은 남원인(南原人)이며 불과 17세의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중병으로 앓아눕자 손가락을 잘라 피로서 약과 합하여 아버지에게 복용, 회생케 하였다. 소년의 효성에 감동한 유림들이 조정에 상소하여 명정(銘旌)의 특전을 얻었다. 계남면 화음리(華陰里) 수열평에 정문(旌門)을 건립하였다.

13. 양재철(梁在澈)

호(號)는 송파(松波), 본관(本貫) 남원으로서 문양공(文襄公)의 후예(後裔)다. 산서면 백운리에서 나이 10세에 원흥(元興)마을에서 고용(雇傭)살이를 하였다. 5리나 되는 들길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석으로 편부(片父)를 문안을 올렸다. 부친의 병환이 위독하게 되자 절지하여 수혈, 3일간을 연명케 했으며 별세하자 3년간을 시묘(侍墓)하였다.

무감(務監)과 감사(監司)가 천거하여 나라에서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하였다. 그 후에 아들인 낙현과 문중에서 정재(旌財)하여 태생지에다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14. 오덕염(吳德謙)

보성인(寶城人)으로 자(字)는 경평(慶平), 호(號)는 운포(雲圃)라 했다. 김낙현(金洛鉉)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당대의 석학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계남면 궁양리에서 학당을 세워 후학양성에 주력했으며 부모에게 효심 지극하여 세인의 칭송이 자자했다.

한말풍운과 남인들의 세도에 밀려 전남 무안군 지도(智島)에 7년간 유배됐다. 이 때 부친상을 당하여 시묘 중이었음으로 불효를 자탄(自嘆)하고 항상 상복을 입고 북향망곡(北向望哭)하였다.

유림들이 조정에 천거,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의 증직을 내렸고 삼강록(三綱錄)에 증재하여 효행과 덕망을 포상하였다. 천천면 오봉리 옥자동에 은거하면서 학당(鶴堂)이라 제각하여 행적을 남겼다.⁸²⁾

82) 三綱錄, 長水誌

15. 오천복(吳天福)

효행이라 함은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행실이며 효자라 함은 부모를 잘 모시는 아들을 이르는 말이다. 효자라 하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선뜻 와 닿는 것은 있으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우주상에 나타난 만물은 반듯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 나타난 동기를 알아보고 아는 것은 역시 우리 인간(人間)뿐이다. 또한 우주상의 모든 물체는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고 나타난 물체는 다시 원인에 의하여 원인으로 되돌아간다. 사람이 나타난 원인은 부모에 의하여서 나타나고 부모에 의하여 성장한다. 나뭇잎은 나무의 뿌리 에 의하여서 수분(水分)과 영양분을 받아 자란다. 그리하여 나뭇잎은 떨어지면 뿌리를 덮어 주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준다. 이상의 현상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한다. 사람도 엄밀히 따져서 물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원인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마음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마음을 돌려주면 물질은 따라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 나아서 성장하기까지의 원인 즉 짙어진 빛을 갠 길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을 일러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짐승이나 다른 물체라는 말이다. 짐승이나 물체는 원인 즉 은혜를 알 까닭이 없기 때문에 불효자는 짐승이나 물체라는 말이다. 석일(昔日) 고어라는 사람은 수신을 위하여 수년 간 강호(江湖)를 떠돌다 돌아오자 부모께서 타계하였다. 슬픈 나머지 자문(自刎)하였다. 민손(閔損)은 효도로서 계모를 회개시켰고, 이창매(李昌梅)는 삼년 시묘로서 효행을 하였는데 두 팔꿈치 자국과 두 무릎 자국이 생겨서 수백 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으니 효행의 행적을 무어라 말할 수 있으랴.

효자 오천복(吳天福)은 김자광록대부함양부원군(金紫光祿大夫咸陽府院君) 휘(諱) 광휘(光輝) 시(諡) 문도공(文度公)의 21세손이다. 부친의 휘(諱)는 상대(相大), 자호(自號)를 묵재(默齋)라 했는데 효심이 지극한 연재선생은 가난한 선비로서 부친생전에는 물에 가서 물고기를 얻고 산에 가서 산고기를 얻어 정성껏 모셨고, 타계하자 휘일(諱日)에 이르러 천어를 구하여 제수(祭需)를 만들려고 천변에 갔다가 실족하여 헤어날 못했다. 천복(天福)이 부친을 찾아 천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타계의 인물이었다.

천복(天福)은 수중에 뛰어 들어 부친을 구하여 등에 업고 나오려 하였는데 물살에 휩쓸려 헤어날 수 없었다. 천복(天福)의 나이 15세였다.

장수와 도내(道內) 유림(儒林)들이 출천지대효(出天之大孝)라 천거하여 교지까지 받았는데 가난하여 비석(碑石)하나 세우지 못한 채 3대가 흘렀다. 비석은 장수읍 대성리 산126번지에 있다.

효동함양오천복기적비(孝童咸陽吳天福紀蹟碑)를 동재이만기찬(東齋李萬器撰)으로 후손 오운찬 등이 세웠다.

16. 유공열(劉供烈)과 경주이씨(慶州李氏)

공(公)의 관향(貫鄉)은 강릉이며, 휘(諱)는 공열(供烈), 자(字)는 덕후(德厚), 호는 초암(草庵)이다. 대광보승록대부문희공(大匡輔崇祿大夫文僖公), 휘(諱)창의 17세손이며, 음보상호군(陰補上護軍) 술제공(述齊公) 휘 덕문(德文)의 12세손이며, 정조조(正祖朝) 팔문장(八文長)이라 지칭한 강남(江南)의 시장(時長), 휘 목원(睦源), 호 동암(東巖)의 손이며 백인은사(白仁隱士) 휘 병모(秉模) 호 소암(小巖)의 아들이다. 유공(劉公)은 가취(家娶)를 광주이문(廣州李門)으로 하였고 불사출세(不仕出世), 불구문달(不求聞達)의 가훈에 따라서 농사로 업을 삼고 특히 부친의 항일정신에 따랐다.

세유(歲有) 덕지인(德之仁)을 신조로 가계를 이어온 집에서 태어난 공의 가세는 어려웠다. 유공은 가축을 기르거나 또는 물고기를 잡아 조상을 받들고 부모 모시는 일에 추호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씨 부인은 이불을 뜯어 부모님의 옷을 만들고 이불솜으로 옷에 놓아 시부모님 옷을 마련하여 올렸다. 새우잠 생활을 하였으며 시부(媳父)4년의 와병 중에 분노는 오히려 향기로웠다고 효심을 말하기도 하였다.

1942년 2월에 공의 백부(伯父)가 득병하여 위급에 이르자 공은 단지하여 수혈, 3일을 더 연명하였다. 1945년 8월에 모친도 병을 얻어 사경에 이르자 단지 수혈을 하였으나 혈량이 부족함을 느꼈다. 공은 다시 다듬잇돌에 약지(藥指)를 방망이로 치자 살은 헤어지고 뼈는 으스러졌으며 물 흐르듯 흐르는 피를 모친의 입에 드렸으나 인명은 재천이라 회생치 못하였다. 3일간의 애통과 5일간 절식(絶食)했으나 약지는 끝끝내 버려졌다.

1952년 2월에 공비(共匪)가 중형제(從兄弟) 2명을 인질로 감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중형제를 구출코자 단신으로 뛰어들었다. 공비 4명과 격렬한 격투 끝에 두 중형을 구출하고 공비를 생포하였는데 치안군의 착각으로 사격을 당하여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장기 치료를 했으나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다. 1952년 4월에 목민관(牧民官)은 군민대회에서 공의 효행을 표창하

였고 1956년에는 치안관(治安官)이 향토 수호와 구국 이념의 대의(大義)를 치하하는 감사의 표창을 하여 불구의 몸을 위로하였다. 공은 타계하였고 자손은 장수읍 노곡리에서 공의 본가를 지키고 있다.

17. 육봉천(陸奉天)

옥천인(沃川人)으로 자는 경운(景雲), 호는 송우(松寓)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인근에 칭송이 자자하였다. 유림들이 육봉천의 효행을 조정에 품계하여 예조의 명에 의해 효자문(孝子門)을 건립했다. 장계면 무농리 국도변에 세워져 있다.

18. 육재중(陸在中)

장계면 무농리에 효자려(孝子閭)가 세워져 있으며 육봉천(陸奉天)의 아들로써 그 도한 지극한 효행으로 문중에서 2대에 걸쳐 효자가 나왔다고 하여 정려(旌閭)를 건립하였다.

19. 육한균(陸漢均)

육한균은 호는 담제(潭劑)이며, 옥천 옥씨로 남희(南羲)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부모 공양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친상(親喪)을 당하여 3년 동안의 여묘(廬墓)를 지성으로 하였다. 산서면 마하리 도평마을에 효행비가 있다.

20. 육호진(陸好鎭)(1769~ 1822)

자(字)는 흥보(興甫), 호(號)는 줄재(拙齋), 본관(本貫)은 옥천인(沃川人)이며 덕곡려(德谷麗)의 후손(後孫)이며 대하(大夏)의 아들이다. 모친의 장기 병환에 정성껏 간호했고 별세하자 3년간을 시묘(侍墓)하였다. 시묘 때 개가 옆에서 자면서, 눈이 내리면 눈을 발로 긁고 꼬리로 눈을 문혀 다소나마 시묘생활을 도왔다고 전한다. 부인(婦人) 황씨(黃氏) 또한 효부여서 조석호곡(呼哭)할 때 까마귀와 까치가 와서 같이 울었다 한다.

여러 번 추천을 받아 1871년(高宗 辛未)에 정려를 명하고 교관을 중직하였다. 후에 증 예조판서까지 증직하였다. 산서면 원흥마을에 정려가 있다.⁸³⁾



육한균 효행비

83) 李豐巽撰 旋麗記文

21. 윤병옥(尹秉玉)

남원인(南原人)으로 좌찬성 문효공(左贊成文孝公) 효손(孝孫)의 후예이다. 천성이 착하고 효심이 지극하며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더니 부친의 병환 10년 끝에 시력을 잃어 장님이 되어 거동이 모두 어렵게 되자 항상 부드러운 얼굴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곁에서 한 몸처럼 부축하고 살피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며 추호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 하였다. 때가 이르러 돌아가시자 예법에 어긋남 없이 장례를 치르니 자향약급향교(自鄉約及鄉校)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22. 윤필은(尹弼殷)

윤필은(尹弼殷)은 용성군(龍城君) 초인(樵仁)의 아들로 1774년(영조 50년)에 태어났다. 편모(偏母)가 중병을 앓아 사경에 이르자 단지(斷指) 수혈하고 기다렸으나 무효하자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 약과 함께 달여 드렸다. 윤공(尹公)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여 8년여를 더 살다 타계하자 시묘(侍墓)를 하였다. 밤마다 큰 호랑이가 하산(下山)하여 개와 같이 수호(守護)하였으니 효성은 무불통(無不通)이라 할 것이다. 1825년 예조에서 명정(銘旌)을 내려 산서면 신덕리(新德里)에 세워져 있다.

23. 이동화(李東華)

성주인(星州人)으로 고은지활(孤隱知活)의 후예이며 진명(震明)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효행으로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학식과 덕망 또한 높아서 존경을 받았다. 유림들의 추천으로 1885년(고종 22년 乙亥)에 명정(銘旌)의 특전을 받았다. 후손들에 의하여 계남면 가곡리(佳谷里) 곡리마을에 정문(旌門)을 건립하였다. 조정에서는 효자에게 내리는 증직(贈職)으로 증 사헌부감찰가선대부예조참판동지의 금부사(贈 司憲府監察嘉善大夫禮曹參判同知義禁府事)의 벼슬을 내려 효성을 표창하였다.

24. 이병학(李秉學)과 동래정씨(東來鄭氏)

이병학은 도암 이경광선생의 후예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운하(雲夏)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인근의 칭송이 자자하여 조정으로부터 포양을 받았다. 부인 동래정씨(東來鄭氏)도 효는 물론 남편의 고질에 허벅지의 살을 도려 치료하는 열행을 보여 역시 포상을 받았다. 장계면

송천리(松川里) 서변마을에 비석을 세워 위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에게 사표가 되었다.

25. 이인영(李麟靈)

조선조 말엽 사람으로 본관(本貫)은 전주(全州)이며 덕원군(德源君)의 14대손으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14세 나이에 어머니가 학질을 앓아 눕자 하늘에 기도하고 허벅지의 살을 도려 약에 혼합(混合) 탕재(蕩材)로 봉양(奉養)하여 회생케 했으며 여생을 편히 누리게 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 지자 현감과 감사가 천거, 표창하고 효자비(孝子碑)까지 세웠다. 당시에는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국도 앞뜰에 있는 토끼섬에 있었으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현재는 계남면 호덕리 원호덕 마을 입구에 이전되어 있다

26. 이정규(李稟圭)

경주인(慶州人)이며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의 후손으로서 효도하여 인근의 존경을 받았다. 모친 상사 후에 3년간의 시묘를 하였으며 부친의 세수 90세를 넘고 본인도 70세가 넘는 노령인데도 효성이 지극하자 세상에서 초인간이라고까지 하였다. 80세가 넘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의 시묘생활을 하자 이웃 친지와 자식들은 극구 만류하였으나 불변한 효심으로 3년 시묘를 다하였다. 향유들의 천거에 의하여 삼강록(三綱錄)에 등재하였으며 세상에서 많은 추앙을 받았다.⁸⁴⁾

84) 三綱錄 參照

27. 이정근(李正根)

효자 이정근(李正根)은 효자 이동화(李東華)의 아들이며 효부 금성라씨(金城羅氏)는 그의 자부(子婦)이다. 효자의 집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는다. 이 말은 사실상 진리이다. 부모가 효하는 것을 보고 자라난 사람과 불효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차이는 크다고 하겠다. 아버지가 효자이면 아들이 효자이고 아들이 효자이면 손자도 효자라는 것을 소강절 선생은 ‘비오는 날 물받이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리적 이치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동화(李東華) 효자가 효자아들인 정근(正根)을 낳은 사실도 이상과 동일한 이치임을 알 수가 있다. 부모를 지성으로 모시고 가정의 예도에도 타의 모범이 되었다. 유림(儒林)의 천거에 의하여 1891년(고종 28년辛卯) 명정(銘旌)의 특전이 있어 계남면 가곡리 곡리마을에 정문을 건립하고 부자효행(父

子孝行)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28. 이하규(李夏奎)



이하규 비석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의 후예이다. 평소에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리어(鯉魚) 먹기를 원하니 그때가 한겨울 이었다. 때마침 고기 장수가 리어 두 마리를 팔러온즉 리어를 먹고 효험이 있어 천수를 누렸으며 평생을 3일마다 성묘하되 풍우에도 불폐(不廢)하였다. 도내 유생 20여명이 순상(巡相)에 고하였으나 당시 국사의 간난(艱難)으로 작설(緘契)을 입지 못하였다. 원래 남원 대산면에서 출생하였으나 후손들이 이 고장에 거주하여 산서면 오성리 방화마을에 비를 세웠다.

29. 임옥산(林玉山)

국현(菊軒)임옥산공(林玉山公)은 1468년(세조14년戊子)에 산서면 오산리에서 출생했다. 자(字)는 인보(仁甫), 호는 국현이고 관향은 조양(兆陽)이다. 문과에 급제, 장수현감을 역임하였다. 지극한 효성으로 성종연대에 효자로 이름이 높아 조정에서는 공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특전을 내렸다. 이것이 장수현감이 된 동기이기도 하다. 장수현감 재임기간 산서에서 장수까지 60리길을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셨다.

선생이 어느 날 현청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부친께서 산비둘기 먹기를 원하였다. 구해오겠다는 대답을 드리고 출근하였는데 하루해가 다 저물도록 비둘기는 구하지 못한 채 석양에 선생은 부모님이 계시는 산서면 오산리로 가야만 했다. 산비둘기를 구하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발길을 재촉, 현재의 장수읍 송천리 구락 마을을 지나자 산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다 선생의 도포자락에 떨어졌다. 이것을 부모님께 봉양하였다. 이때부터 비둘기가 떨어졌던 이 지역을 구락리(鳩落里)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식민정책은 우리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으로 “구락(鳩落)”을 “구락(九洛)”으로 부르게 했다. 산서면 오산리 대로변에 선생의 효자각(孝子閣)을 세웠다. 조정에서 사액된 정문(旌門)이다.

30. 장기하(張基河)

장기하(張基河)는 봉성인이며 아호(雅號)는 가은(稼隱)이다. 한성판윤 장충익(漢城判尹 張忠翊)의 후예로 도사우중(都事宇重)의 5대손이다. 장공(張公)부부는 부모 섬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살폈다. 부모가 병석에 누우면 대변을 먹어 병세를 판단, 천지신명께 빌었다. 자신의 몸으로 부모를 대신할 것을 빌었고 잠시도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효자 부부의 효행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명정의 특전을 내렸고 장공에게는 동몽교관(童蒙敎官)을, 부인에게는 영인(令人)의 증직을 봉하여 효도하는 부부를 포양하였다. 정려(旌閭)는 산서면 오성리에 있다.

31. 장사명(張士明)과 진주소씨(晉州蘇氏)

홍성인 장우민(張宇民)의 아들로 출생하여 숙부 우현(宇玄)에게 입양되었다. 장성하여 진주소씨댁의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부부는 천성이 어질고 독실하여 인근의 칭찬을 받았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을 보였다. 어머니 병환에 비둘기가 좋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비둘기를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하자 부부는 천지신명에게 빌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비둘기를 구하려고 나가는 장공 앞에 산비둘기 한 쌍이 날아와 안겨서 달여 봉양하였다. 부모님이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셨는데 장사 날이 되었다. 때마침 장마철이라 비가 세차게 쏟아져 장사를 모실 수가 없어 부부는 하늘을 향해 대성통곡하며 비가 멎기를 기원하였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멎어 무사히 장사를 치렀다. 세인들은 감동하였고 선비들은 장효자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였다는데 조정에 품계, 통정대부사헌부감찰(通政大夫司憲府監察)의 벼슬을 제수하고 예조로부터 명정(銘旌)의 특전을 받았다. 변암면 노단리에 효자여(孝子閭)를 건립하고 효도를 포양하였다.

32. 장영손(張永孫)

공은 부친이 별세하자 3년간 시묘하면서 음식물의 염장을 먹지 않고 손수 제물을 갖추어 조석으로 상식을 올렸다. 천천면 남양리에 효자비가 있다.

33. 전형규(全亨奎)

고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모친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으며 위태롭게 되자 자신의 살을 도려 약과 함께 병복케 하였다. 세상은 선생의 효심을 크

게 칭송하였으며 장계면 오동리에 효자비가 세워져 있다.

34. 정인규(丁寅圭)



평일에도 항상 생선으로 부모를 봉양하였고 불행히 부친이 풍병(風病)으로 위석(委席)함에 시탕(侍湯)을 지성으로 다하고 또한 모친 풍병에도 7년간을 간병함에 정성을 다하여 회춘한 수년 후에 죽으니 향린(鄉隣)이 효자라 칭하고 포상코자 하였으나 절대 사양하였다.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에 효행비가 세워져 있다.

정인규 효행비

35. 정종갑(鄭鍾甲)

정종갑은 천성적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당시의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조상에 대한 봉사와 부모를 봉양하는 남다른 효행에 대하여 이웃에서 보기 드문 효자로서 사회의 귀감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특히 다년간 부친의 외환에도 결식을 하면서까지 구약 봉양케 하는 효성은 물론 마침내 임종에 이르자 하루라도 더 연명시키겠다는 지극한 효성으로 좌측 약지를 절단하여 흐르는 피를 부친께 수혈하여 기이하게도 회생하여 월여를 더 연명하다가 운명하였다. 번암면 사암리 하임신 마을에 효행비가 있다.

36. 정종목(鄭鍾穆)

경주인(慶州人)으로 자(字)는 종태(宗泰) 호(號)는 춘포(春圃)라 하였으며 1598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에서 6부자(六父子)가 한낱한시에 동시 순절한 공신(功臣) 정원길(鄭元吉)의 후예로 휘(諱) 상준(相駿)의 손자이다. 어릴 적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남들도 영특하게 보았다. 13세에 부친의 병환이 위독해져 백약이 무효하고 회생이 난망, 인육이 특효라는 말을 듣고 어린 자신의 허벅지를 도려 약과 함께 다려 올리자 병환이 완치, 세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허벅다리 상처는 된장을 발여가며 3년이 지나고야 그 상처가 나았다고 한다. 생사(生死)가 유명(有名)하고 부귀(富貴)가 재천(在天)이라는 격언도 있으나 사람의 명이란 영원할 수는 없어 후일에 부친은

천수를 다하였다. 공(公)은 예법에 의해 상례를 치렀다. 유림에서는 관찰사에 추천하였고 예조에서 특전을 내려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 대로변에 효자려(孝子閭)를 건립했다.

37. 조병일(曹秉壹)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효자 조병일은 자는 운직 이요, 관직은 중추원의관이다. 본관은 창녕이며, 감사 휘 영식의 후손이요, 부는 가선대부 휘 성순이다. 어릴 때부터 타고난 성품이 온후하고 자애로워 아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다했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외롭게 그 어머니를 섬김에 거처를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며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뜻과 신체를 능히 봉양했다. 어머니가 5년 동안 앓고 있는 동안 백방으로 간호하고 약을 써 가면서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치우고 청소하였으나 하늘이 정해준 수명이 있어 마침내 상을 당했다. 부부가 예절에 지나치도록 슬퍼하여 몸이 상했고 장사와 제사에는 예절을 준수하였으며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매일 성묘했다. 복을 벗은 뒤에도 매년 기일을 맞으면 3일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조용하게 가지며 7일 동안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주변을 정돈하여 살아계실 때 섬기던 것처럼 정성을 다 하였다. 조병일 효자가 행한 효행들은 현대의 물질 만능시대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일깨워 주었다.

38. 한정석(韓正錫)

관향이 청주이며 안양공(安襄公) 종손의 후예 휘 규태(圭泰)의 아들로 자는 순서(舜瑞)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 섬김을 정성으로 하였고 수를 다하고 돌아가실 때에는 예법에 맞춰 장례를 치루고 검소한 음식으로 지성을 다하며 애통해 하였다. 이 지방 장계면 출신이다.

39. 효부 김해김씨(孝婦 金海金氏)

효부 김해김씨는 문민공 탁영(文愍公 潛纓)의 후손인 기주의 딸로 16세에 흥성인 장병술의 처가 되었다. 충숙공 연우는 빛나는 선조이시고, 선비 호택은 시아버지이다. 부인께서는 타고난 천품이 조용하며 여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보통사람보다 뛰어나게 알아서 행동하니 향리에서 좋은 평판이 있었다. 나이 16세에 시집와서 시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지성으로 모셨다. 시모님께서 발에 열이 심한 증세가 있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버선을 신지

않으시니 부인께서도 겨울이 닥쳐서도 버선을 신지 않았고 시모님께서 강가에 있는 다슬기를 기호하시니 혹한의 동절에도 얼음을 깨고 강에 들어가 다슬기를 구하여 봉양하였다. 시모께서 중환으로 백약이 무효 일 때 허벅지 살을 베어 달여 드려서 회생하여 천수를 누렸으나 정신이 혼미하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데다 무시로 문밖으로 나가 방황하니 부인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모님을 모셨으며 대소변이 묻은 옷을 항상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혔음은 물론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십여 년을 하루같이 어린아이 돌보듯 지성으로 모셨다. 만고에 드문 출천의 효행에 유림에서는 경자년 2월에 효부로 포양하였고, 성균관에서도 갑술년 9월에 비각을 세우라는 특별한 은전이 있어서 1995년 8월에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에 비를 세웠다.

40. 김해김씨(金海金氏)

부인은 임진왜란당시 귀화한 증(贈) 병조판서(兵曹判書) 모하당(慕夏堂) 김충선(金忠善)장군의 9대손 세원(世源)의 딸로 성장하여 문절공(文節公)양사도(梁思道)의 후예 우재규식(愚齋圭植)에게 출가 90 대의 시부에게 효도를 다하였다. 1891년(고종 28년) 남편이 병에 걸려 위독하자 자신의 허벅지를 도려 회복케 하였다. 나라에서는 부인을 포상하고 후손들은 계남면 화양리(華陽里) 중방마을 앞에다 비석(碑石)을 세웠다.

41. 김해김씨(金海金氏)



김해인 김중건(金重健)의 여식으로 성산인(星山人) 이순영(李順永)에게 출가하였으나 남편이 일찍이 타계하였다. 부인은 장님인 시모를 정성껏 모셨고 칠성당을 두어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다. 하늘의 도움인지 시어머니는 눈을 뜨게 되었고 여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유림에서는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평지마을 천변에 부인의 효행을 기려 비석을 세웠다.

42. 이근여사(李根 女史)

효부 이씨는 장수군 계남면에서 출생하여 변암면 사암리 방화동 나주 임

씨(羅州林氏)가문으로 출가하였다. 불행히도 칠순의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신음하게 되자 온 정성을 다하여 구약수발을 하였으나 차도가 없이 위독하자 칼로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를 입에 넣어 드리는 등 효성을 다하였으나 노환인지라 회생하지 못하고 운명하게 되었다. 홀로되신 시아버지를 위로하고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하므로 주위에서 특출한 효부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도(道)와 호남의 유림들이 그 효행기적을 연판 작성하여 중앙 모성공회에 천거하여 정문을 세우도록 하였다. 당시 바로 세우지 못하고 후에 비를 건립하였으니 변암면 사암리 방화동 마을에 있다.

43. 이효녀(李孝女)

조선조 정조시절(正祖時節)의 일이다. 양은(良殷)의 딸로 15세 나이에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허벅지 살을 도려 약에 달여서 병을 완치케 하자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은전(恩典)을 받았다. 장수현감 유심춘(柳尋春)이 효녀전(孝女傳)을 저술(著述), 운봉아전 박씨(朴氏)집으로 보냈다.⁸⁵⁾

85) 江皋集

44. 경주정씨(慶州鄭氏)

경주정씨(慶州鄭氏)는 정재화(鄭載和)의 딸로 홍성 장씨 도(道)에게 출가하였다. 남편이 일찍 죽자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서 시부모를 받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새벽마다 시부모에게 드릴 약수를 뜨러 다녔는데 항상 호랑이가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며 보살펴 주었다고 전한다. 후에 지방 유림들의 청을 받아 변암면 노단리에 효열비를 세웠다.

45. 전주최씨(全州崔氏)

함창인(咸昌人) 김재구(金在九)에게 출가하여 남편이 일찍 사망하니 시부모를 지극히 효성으로 봉양하자 향교에서 포양하였고 후손들이 효열비를 건립하였다.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원호덕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다.

46. 남양홍씨(孝烈婦 南陽洪氏)

인간만사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충효열행(忠孝烈行)이라 할 것이다. 효열녀(孝烈閼)는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입구 삼각지에 있다.

홍씨부인은 경주이씨 가문에 출가하여 늙은 시모를 모시고 남편을 도와

남양 홍씨 효열여 정려비



서 살았으나 불행하게도 남편이 중병에 눕게 되었다. 병든 남편의 간호는 물론 늙으신 시부모님과 아래로는 4 형제의 자식을 양육하느라 샅품을 팔아 끼니를 해결하였다. 끝내 남편이 병석에서 회생치 못하고 타계하자 예로서 치상하고, 때로는 구걸하고, 때로는 고용하여 부모를 모셨다. 주위에서는 효부요, 열녀라는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시부모가 별세하자 예의로 치상하고 아들 4 형제를 잘 길러서 조상의 뒤를 잇게 하였다. 경주이공 휘 대유의 12 대손가에서 생긴 일이고 보니 활계(活溪) 선생의 덕(德)이 이어진 듯하며 삼각노상에 단정하게 서있는 효열려는 세상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위쪽에 쌍계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비록 시대가 바뀌어서 효열행위를 천거한 사실이나 교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부인의 덕은 남아서 효열을 노래하고 아들은 석조(石造) 정려(旌閭)를 세워 효열 행을 전하고 있다.

제3 절 열녀(烈女)

1. 능성구씨(凌城具氏)

효열부 능성구씨는 전사와 능성구씨 원모 공의 따님으로 백촌 김문기 선생의 14 세손인 휘 기옥의 아들인 용성과 혼인하였다. 시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이 극진히 봉양하였으며, 남편을 존경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하는 일이 없었고 반드시 상의하여 처리하였다.

뜻밖에도 남편이 병이 들어 병세가 위독해지자 자기 손가락을 끊어 수혈하니 수일간 생명을 연장하였으나, 천명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니 밤낮으로 통곡하다가 실신하기도 하였다. 남편을 따르려 하였으나 시부모님과 여섯 명의 자녀가 있어 슬픔을 억제하고 평생을 수절하며 생활하였다.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몫까지 다하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번암면 유정리 만항마을 앞에 석정문(石旌門)이 세워져 있다.

2. 광산김씨(光山金氏)

김씨는 경주인(慶州人) 이상준(李相濬)의 처이다.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더니 남편이 병이 들어 백방으로 치료하였으나 효험이 없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 치료하고 하늘에 빌었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니 그 때 나이 25세였다. 물도 마음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하종(下從)고자 하니 문중의 회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예제(禮祭)를 하루같이 하고, 자녀훈육을 엄중히 하여 조금도 과실이 없게 하였다. 산서면 쌍계리에 열행비가 있다.



광산 김씨 열행비

3. 경주김씨(慶州金氏)

경주 김씨 휘 윤의 다섯 번째 딸로 1855년(乙卯)3월12일 생이며 본명은 김한운(金漢雲)이다.

성주 이씨 휘 석규(錫奎)의 처로 성품이 온화하고 행실이 정숙하여 특별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능히 아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를 깨우쳤다. 시어머나가 병환에 있을 때 변을 맛보며 병세를 살폈고 삼복더위에도 시원한 음식을 드시게 하고져 하늘에 지속적으로 치성을 드렸는바 천둥과 함께 마당에 쏟아진 우박을 갈아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의 효행은 공부자 성적도 오륜행실 중간소에 전국 유림들이 천거하게 되었고 1923년 포상을 받았다. 효행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는 양처로서의 부덕을 겸비하였으며 백기, 공기, 영기 등 세 아들을 훈육하는데 또한 현모였다. 비록 자신의 형편이 넉넉지 못하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그의 행실이 세인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후손들은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에 묘지를 단장하고 효부행적비를 세워 후세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김해김씨(金海金氏)

한말의 의병대장 전해산(全海山)장군의 부인이다. 전 장군이 왜경에게 잡혀 1910년 7월 19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시신은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원촌마을에 운구 되었다.

부인은 방성통곡하고 그날 밤에 자결하였다. 충신의 아내로서 부끄러움 없는 당연처사라 할 것이나 이 또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앞서 전 장군 부모양위께서는 아들의 체포소식에 식음을 전폐하고 신을 끝에 별세하자 남편을 대신하여 예의로서 치상(治喪)한 효부였으며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 열녀는 여지덕(女之德)을 다했다 하겠다.

5. 김해김씨(金海金氏)

장수읍 노곡리에 조성순의 처인 열녀 숙부인 김해김씨의 열녀문이 서 있어 오가는 사람은 물론이요, 마을 여인네들의 덕행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열녀 김씨는 본관이 김해이고 김해군 휘 목향의 후손이다. 남편은 학생으로 승지를 증직 받은 조성순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예조판서 휘 영식의 19세 손이요, 영광군수 휘 영의 15세손이요, 인천부사 휘 석견의 13세손이다.

어릴 때부터 부드럽고 온순한 성질은 비록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도 능히 지조를 가졌으니, 옛날 훌륭했던 여인들의 범절을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 씨의 집안에 시집 온 뒤에 시부모를 섬김에 효성을 극진히 했고 군자를 존경함에 정성으로 그 예절을 다하여 온 집안이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사방 이웃들이 칭찬하고 축하했다.

23세 되던 해에 뜻하지 않은 슬픔이 집을 덮쳤다. 그것은 남편이 원인 모르는 이상한 질병에 걸려 여러 달 동안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모든 약이 효험이 없었다. 단을 쌓아놓고 오래 살기를 빌고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있게 해주도록 기원했다. 마침내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허벅지 살을 떼서 달여 먹여 반나절 동안 소생하게 만들었다. 죽음은 어찌 할 수 없어 통곡하고 슬퍼하여 몸을 상하게 했음을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다. 마침내 따라서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며느리를 부르는 시부모와 어머니를 부르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여 억지로 일어나 초상을 치렀다. 3년 상을 치르는 동안 매일 산소를 찾아가 통곡했으며, 입으로는 고기를 먹지 않고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았다.

노부모와 어린 아들이 있어 자진할 수 없게 되자 부인은 약으로 머리를 희게 하였고 방망이로 이를 뽑아 노파가 되었다. 또한 인두로 얼굴을 지저 추하게 만들어 부모를 지성껏 모시고 아이들을 길렀다.

열녀 숙부인 김해김씨 비문 원본을 보면 “단을 쌓아 자기가 죽도록 기원하

고 허벅지살을 떼어 바쳐 깨어나게 했네! 열(烈)도 어려운데 더구나 효행(孝行)까지 겸비했네!”라고 기술했다.

6. 부안김씨(扶安金氏)

부인은 부안인(扶安人)으로 정홍수(鄭洪洙)의 처로서 혼인 3일 만에 남편이 타계했다. 장례를 마치고 난 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을 따라 죽기 전 “명이 끊기거든 남편 옆에 묻어 달라”고 말하며 숨을 거두자 세상 사람들은 신부(新婦)의 절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아주버니 정도연(鄭道淵)은 비(碑)를 건립하여 열행(烈行)을 세상에 알리고 가륵한 정신과 영혼을 달랬다. 장수군 변암면 사암리 원사암 마을 앞에 비가 있다.

7. 남평문씨(南平文氏)

문씨의 관향은 남평(南平)이며 문형국(文亨國)의 딸로 남도 땅에서도 명망이 높은 집안출신이다. 그 선조에는 충선공(忠宣公)과 충숙공(忠肅公)이 있어 일찍이 충과 효로써 소문난 가문이었고, 또 문씨의 조모 권씨가 다시 대의(大義)를 본받더니 이어서 문씨가 이 집안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언문(諺文)을 해득하여 소학(小學)이나 열녀전이 아니면 읽으려하지 않았으니, 그 성정과 품행의 정숙함이 혼인 전에 이미 갖추어져 모든 행동이 규범에 어긋남이 없었고, 을미년에 권희언(權希彦) 공(公)에게 출가하니 그 시택 또한 지극한 효자로 이름난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의 후손이다.

그러나 문씨가 혼인한 지 겨우 5개월에 부군이 홍역으로 일찍 별세하니 그때는 문씨가 아직 친정에 머물러 시택에 오기 전이었다. 별세하기 전에 병보(病報)를 듣고 친정을 출발하여 오는 도중에 부음을 접하고는 통곡하다 혼절을 하기도하였으며, 그길로 시택에 와서 장례를 마치는 데에 몸소 정성을 다하였고, 거상(居喪) 기간에는 단벌의 옷으로 여름과 겨울을 지냈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궤연(几筵)한 곳에서 거처를 옮기지 않았으며, 머리에는 빗질을 하지 않았고 하늘과 해를 보지 않았으며, 먹는 것은 오직 미음 한 그릇씩으로 삼년을 마쳤으니 끝이 처음처럼 한결같았다. 그렇게 삼년상을 마치고 첫 기일(忌日)이 되는 날, 제사를 마치고 집안사람들과 하인들이 모두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문씨는 몰래 방에 들어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하얀 모시옷으로 갈아입고는 곧 음독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그 침상에서 여러

폭의 유서가 발견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유서내용을 살펴보면 초상 시에 바로 부군의 뒤를 따르려 하였지만 혹 복중(腹中)에 부군의 일점혈육이라도 머물렀을까 하고 스스로 잔명(殘命)을 투생보중(偷生保重)하고 보신지책(保身之策)했던 일을 망극하고 민망해하였으나 그마저 헛일이 되자 결국 조카 재강(再岡)을 양자로 삼게 되는데, 그 양자마저도 어려서 죽으니 일련의 흥변들이 모두 본인의 죄역(罪逆)이 지중지악(至重至惡)하고 불혜불민(不慧不敏)한 때문이라 자책하며 부형에게 후사(태어날 조카로 양자를 삼아 부군의 기일이라도 기억케 하려함)를 부탁하고 부군의 뒤를 따르고자 한 것이다.

당시가 음력 시월인데도 여름에 입는 모시옷을 입고 죽은 것은 여름에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있는 날이 겨우 17 일(일순칠일) 뿐이라 지하에 가서도 서로 알아보지 못할 것 같으니 결혼할 때에 입었던 옷을 입어야 서로 알아볼 것 같다는 등 부군에 대한 사모의 정과 죄인 된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후사에 대한 염려의 피 끓고 애 녹는 애절한 사연에 그 유서를 보고 듣는 사람이 모두 눈물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도내 29 고을의 선비들이 극구 포양하고 정조 7년(1783년)에 왕이 왕릉 행차 시 부인의 종 가현이 바라를 쳐 직소하니 명정(銘旌)의 특전을 내려 정문(旌門)을 세웠다. 유서와 선비들이 돌린 통문(通文)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8. 밀양박씨(密陽朴氏)

박성근(朴成根)의 딸로서 성산인(星山人) 이성진(李聖晉)에게 출가하여 시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남편에게도 지극히 공경 했다. 남편이 득병하여 자리에 눕자 지성으로 간병, 위독해지자 절지하여 선혈(鮮血)을 드리고 자신의 몸의 살을 도려 혼엽진탕(混葉盡蕩)을 복용했으나 보람 없이 세상을 떠났다. 부녀자로서 남편의 묘역에 여막을 치고 3년 시묘를 마치고 여막에서 스스로 자결, 남편의 뒤를 따랐다.

향유(鄉儒)들의 천거로 명정(命旌)의 특은(特恩)까지 받았다.⁸⁶⁾

9. 경주설씨(慶州僉氏)

설씨는 청주인(淸州人) 한봉기(韓鳳起)의 처이다. 남편 공경함을 예로하고 구고(舅姑) 섬기기를 효로 하여 정성(定省)의 절차와 공양의 도리에 순덕(順

86) 長水誌 參照

德)을 다하였다. 남편이 죽자 남편의 뒤를 따르려 하였으나 노시부모와 자녀의 양육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집이 가난하여 백리의 길을 왕래하며 부임(負任)함에 중도까지 왕영(往迎)하여 그의 노고를 가름하고, 혹 구걸하여 시부모를 봉양하고 스스로는 초근으로 연명하니, 장수교궁(長水校宮)으로부터 포상되었으며 그 후 비를 세웠다. 산서면 오성리 방화마을에 있다.



경주설씨 효열비

10. 진주소씨(晉州蘇氏)

진주소씨(晉州蘇氏) 문중에서 태어나 증통운대부사복사정(贈通訓大夫司僕寺正) 김연장(金纘章)에게 출가하여 병약한 남편을 구하였으나, 끝내 타계하고 말자 남편의 뒤를 따라 자진하였다.

1788년(정조 12년戊申) 명을 받아 산서면 이룡리(二龍里)에 정문(旌門)을 건립했다.

11. 남원양씨(南原梁氏)

양씨부인은 남원양씨 문절공 사도(思道)의 후손이며, 우제규식의 딸이다. 노부모를 항시 봉양하되 양지양체절차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고, 동갑인 남편에게도 귀빈을 대하듯 공경하여 그 뜻을 지성으로 받들었고 형제간의 우애와 동족간의 화목 또한 곤궁한 이웃을 지성으로 도와주니 친척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도 ‘효부현처’라하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남편이 23세의 젊은 나이에 중병을 얻어 8년간이나 지성으로 병간호를 하였다.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도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자식들 수바라지를 혼자 힘으로 다 하였다.

12. 열부 양순녀 여사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 용전마을에서 양석열씨의 3남3녀 중 장녀로 태어나 산서면 신창리 대창마을의 강릉유씨 영재공과 결혼하여 5남매를 두고 시부모님에게는 극진한 효부이며 부군에게는 동반자로,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로 인근의 모범이 되었다.

1945년 봄 식민통치가 극에 달할 때 영재공은 일제 밀정의 밀고로 무고

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후유증으로 늑막염이라는 병을 얻었다. 의료 기술이 열악했던 당시 방방곡곡으로 수소문하며 백약을 처방하며 간병하였으나 병세는 악화되고 마침내 편모와 아내, 어린 5남매를 둔 채 하직하고 말았다. 남편과의 사별로 큰 충격을 받은 부인 양씨는 남편을 살리지 못한 자책으로 갈등을 겪다 주위의 간곡한 권유마저 뿌리치며 식음을 전폐하더니 결국 남편 사별 4개월 후 남편 곁으로 떠나고 말았다.

향유들은 대단한 열부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후 강릉유씨 문중 보첩에 부인의 효열행을 칭송하는 품행시를 기록하고 있다.

13. 해주오씨(海州吳氏)



해주오씨 수열비

1597년 정유재란 때 장수지방 침입한 왜적들은 약탈과 방화를 하며 특히 부녀자들을 겁탈하였다. 이때 양사순의 처 해주오씨(海州吳氏)는 계남면 화음리 수열마을에 살고 있었다. 조반을 짓고 있는 부인에게 왜적들이 달려들어 희롱하면서 젓가슴을 만졌다. 이런 모욕을 당하자 부인 오씨는 식칼로 젓가슴을 도려 왜적들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장차 자식을 낳아 젓을 먹여 조상의 뒤를 이을 소중한 젓에 더러움이 났다. 오랑캐 놈들이 갖고 싶거든 가져라”하고 뿌리치면서 자진하였다.

이 민족의 여인들의 절개를 그대로 보여준 열녀중의 열녀였던 것이다.

후에 유림들이 나라에 상주하여 예조에서 비를 세우게 했다. 이 비가 세입진 양사순의 처 해주오씨 수열비이다. (歲壬辰 梁思舜 妻 海州吳氏 樹烈碑)

선조임금의 12남인 인흥군(仁興君)영(瑛)의 아들 낭선군(朗善君)우(僖)가 쓴 휘호를 받아 각자(刻字)한 것이다.

비(碑)의 이면(裏面)에 수열평(樹烈坪)이라 새겨졌으므로 마을 이름이 화평에서 수열평으로 개칭되었다. 장장 4백여 년 간 도로변 논둑에서 비에 젖고 눈에 얼었으나, 1985년 12월에 장수군 사업으로 수열평 후산에 아담한 비각을 세우고 비석을 1989년 3월에 계남면 화음리 고정마을에 이전 보존되고 있다.

14. 효열부 유씨(孝烈婦 柳氏)

부인의 성은 유씨(柳氏)이고 관향은 진양(晉陽)이다.

고려조 좌우위상장군(左右衛上將軍) 휘(諱) 연(挺)의 후(後)학생 원두(遠斗)의 여(女)로 태어나 연안송숙의공(延安宋肅毅公) 휘(諱)



진양유씨 효열비

경(卿)의 현손(玄孫) 사인(舍人) 휘(諱) 수산(壽山)의 후(後) 학생(學生) 정석(禎錫)에게 출가(出嫁)하였다.

부인은 일찍부터 재질이 뛰어났고 출가하자 모두들 숙원(淑媛)이라 일컬었다.

남편 송공(宋公)은 재덕(才德)을 겸비(兼備)하였으나 가세(家勢)가 어려워 정식으로 수학하지 못하고, 백형(伯兄)이 독서하는 소리를 듣고 사서(四書)를 연송(連誦)하니 모두들 장래가 촉망된다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연히 이질(異疾)에 걸리게 되자 부인은 기한(飢寒)을 참고 품팔이를 하며, 때로는 머리카락을 팔아 약을 사고 기도하는 등 23년을 하루같이 간호하였으나 위독하게 되자 두 번이나 손가락 피를 흘려 넣어 수일간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상(喪)을 당하자 가례(家禮)에 의하여 장례를 치렀다.

이 지방(地方) 유림(儒林)은 시대가 달라 몽포(蒙溲)하지 못한 것을 애석히 생각하여 1935년 3월 본향(本鄉)에서 그 행절(行節)을 포양하고 계남면 고기리에 비를 세워 사실을 기록하였다.

15. 원주원씨(原州元氏)

원씨부인은 관향이 전주로 박이항(朴以恒)의 처이다.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 때 장수지방을 침공해 온 왜적을 피해서 백운산으로 가는 도중에 왜적을 만나 그들이 겁탈을 하려



원주원씨 부인 정려

하자 순절(殉節)했다. 후에 부인의 정절(貞節)을 만헌(晩軒) 정엄이 「절부 원씨전(元氏傳)」을 지어 후세에 전하였다. 유림이 조정에 천거 명정(命旋)의 특전(特典)을 입었으며, 후손들이 산서면 백운리에 정려(旌閭)를 건립했다.

16. 경주이씨(慶州李氏)

장수읍 노곡리 열녀(烈女) 이씨는 관적(貫籍)이 경주(慶州)인이며 동지중추(同知中樞) 휘 종민(宗敏)의 따님이요, 고령인(高靈人)으로 부원군인(府院君) 휘 장(樞)의 후예이자 교관 석좌(錫佐)공의 아들인 효자 신혁구(申赫求)의 아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어질었으며, 부모님을 섬김에는 효도로써 하였고, 형제간의 우애는 도리로써 하였다.

신씨(申氏) 가문에 시집와서는 시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극진하게 하고, 남편을 공경하여 능히 그 효도를 다 할 수 있게 하였다. 부군(夫君)이 우연히 병을 만나자 온갖 정성을 다하여 구조(救調)하니, 자야(子夜)에 목욕하고 하늘에 빌기를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하였다.

또 위급하여지자 허벅지 살을 베어 삶아드리니 깨어나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시자 하늘을 보고 호곡(號哭)하며 슬픈 감정을 차마 말로 다 표현 하지 못했다.

부군의 뒤를 따르려고 하였으나 친척들의 구조로 차마 죽지를 못하였고 더욱이 포대기에 싸여있는 어린 것들을 생각하여 마음대로 결행하지를 못하였다. 3년 상을 치루는 데에 있어서 하나같이 예제(禮制)를 따라 머리에는 빗질을 하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의리로써 자식을 가르쳤고, 도리로써 집안을 다스렸다. 슬하에 한 자녀와 두 손자를 두었는데, 또한 가풍(家風)을 이어 받아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니 “이름답고도 아름답도다.”라며 도내 유생들이 이 열녀의 기풍을 감탄하여 만든 진정서가 전해져 오고 있다.

17. 전주이씨(全州李氏)

이씨는 사인(士人) 김익(金弼)에게 출가했다. 의행(懿行)에 숙취(夙就)하고 19세에 결혼하여 시부모를 효성으로 받들더니 3년이 되던 병진년에 남편이 병을 얻어 위독함에 목욕재개하고, 하늘에 빌기를 자신의 몸으로서 대신하기를 원하였으나, 마침내 세상을 떠나자 슬퍼하다가 남편의 탈상을 하던 날 남편의 뒤를 따르려 하였으나 노시부모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태연하여 거의 표정에 작은 변화도 나타내지 않더니 한 달이 지난 망월(望月)에 노부모와 이모에 삼찰(三札)로 고결(告訣)하고 세상을 떠났다.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에 정려가 있다.

18. 연안이씨(延安李氏)



연안이씨 석정문

이씨는 광주인(廣州人) 안효명(安孝模)의 처로 사간공(思簡公)의 후손이다. 남편이 병이 깊어 약으로 효험이 없자 목욕재개하고, 하늘에 빌되 대신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엄동설한에 배(梨)를 원하는데 배나무 밑에 가서 기원하다보니 큰 배 하나가 나무에 달렸는지라 가지고 돌아와 즙(汁)을 내어 복용하게 하였더니 소생하여 1년을 더 살다가 죽으니 사람들이 성감(誠感)의 소치(所致)라 하였다. 이씨의 증손형제가 석정문을 세우고 열행을 새겼다.

19. 이씨부인(李氏婦人)

이씨 집에 태어나 우환(禹還)에게 출가,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여 인근의 칭송이 자자했다. 어느 날 밤 큰 호랑이가 집에 들어와 남편을 물고 가는 것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호랑이를 붙들고 때려 남편을 구했다.

이씨 부인의 용감성과 남편에게 바친 열행은 어떠한 열녀에도 뒤질 수 없는 일이라 향유(鄉儒)의 천거로 명정(命旌)의 특혜를 받았으나, 상인이라는 당시의 모순된 신분제도와 가난으로 정려(旌閭)를 세우지 못했다.⁸⁷⁾

87) 長水誌

20. 구례장씨(求禮張氏)

원주인(原州人) 원석로(元錫魯)의 처(妻)로서 남편이 병세가 위독하여 배(梨)를 먹고자 하매 장씨 부인이 후원의 배나무를 안고서 천지신명에게 기원하였는데, 홀연 배 두개가 방금(方今) 자라니 이 배를 따다가 남편에게 먹여 큰 효험을 보았다. 수년 후 남편이 다시 득병하자 부인은 절지 선혈을 남편 입에 흘려 넣어 3년간 수명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후에 유림의 천거로 삼강록(三綱錄)에 등재(登載)됐음은 물론 포상까지 하였다.⁸⁸⁾

88) 三綱錄

21. 서산정씨(瑞山鄭氏)

부인은 어려서부터 예절과 법도를 닦으니 행실이 조양했으며 자라서 서문배(西門培)의 처(妻)가 되었다. 출가한 부인은 남달리 부도(婦道)를 실천해

웁겼다. 어느 때 불행하게도 불륜자(不倫者)에게 손목을 잡히자 손목을 끊어 버리고 급기야 자결하였다.

나라에서 가륜한 부인의 정열(貞烈)에 감복하여 정려(旌閭)를 건립, 세상에 본을 삼도록 하였다.

22. 나주정씨(羅州丁氏)

부인은 증호조참의(贈戶曹參議) 진기환(晉畿煥)의 처로 남편이 득병, 위독했을 때 허벅지 살을 도려 약으로 쓰고 절지수혈로 남편을 구병(求病)케 했다. 후일 다시 재 병발(再病發)로 별세하자 계모(繼母)에게 지극히 효성봉양(孝誠奉養), 세상에서 효부요, 열부로 추앙을 받았다. 부인의 생애가 삼강록(三綱錄)에 등재됐으며, 남편의 증직도 부인의 효행과 열행의 결과로 추증되었다.⁸⁹⁾

23. 정씨부인(丁氏婦人) 두 분의 절·열행(節烈行)

영인정씨(令人丁氏)는 유현(游衍) 정황(丁煌)선생의 현손인 현감 지(至)의 딸이며, 현감 권백시(權伯時)에게 출가하였다. 정유재란 때 적병을 피하여 숲속으로 숨었으나, 왜병의 집요한 추적으로 봉변을 당하게 되자 남편에게 아들을 데리고 피신할 것을 권하고 자신은 물속으로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유인정씨(孺人丁氏)는 유현(游衍) 정황(丁煌)의 현손인 석후(錫後)의 딸로 풍천인(豐川人) 생원 노세기(盧世琦)에게 출가하여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에게 온후하여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인조 16년(1638년)봄에 도둑이 들어 남편인 노세기를 끌어내어 온갖 만행을 다하였다. 이때 부인은 도둑에게 재보(財寶)는 마음대로 가져가되 사람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도둑들은 더욱 흥기를 휘둘러 남편을 다치게 하려하자 부인이 남편의 몸을 가려 무사하게 되었다.

인조 24년(1646년)에 남편이 죽자 장사를 치른 후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의 뒤를 따랐다.

나라에서는 열녀의 명정(銘旌)을 내려 열행을 치하하고 정문(旌門)을 건립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려가 훼손되자 두 정려를 하나로 하고 편액을 한군데 걸어 현재는 하나로 유지 보존하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에 소재하고 있다.

24. 춘월부인(春月婦人)

부인은 김사전(金士傳)의 아내로 성씨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과 함께 산중에 들어가 화전을 하고 살던 중 호랑이가 나타나 남편 김사전을 물고 가려하자 부인이 팽이로 호랑이를 찍으니 성난 호랑이는 남편을 놓고 아내를 물었다.

이로 인하여 부부가 함께 죽자 세상에서 부인의 열행을 나라에 상주하여 명정(命旌)의 특전(特典)이 내려졌으나 정문(旌門)을 세우지 못하였다.

25. 김해허씨(金海許氏)

김해(金海) 허영(許榮)의 따님으로 운포(雲圃) 오덕염(吳德謙)에게 출가하여서 시부모를 지성으로 공경하고 현모양처(賢母良妻)로서 표본이 되었다.

세상에서는 부인을 존경하고 칭송하였다. 남편인 오공(吳公)이 전남 무안군 지도(智島)에서 유배생활 7년에 득병하여 위태롭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천리 길을 멀다하지 않고 달려가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 약과 함께 달여 복약, 회생케 하였다. 유배에서 풀려 돌아온 남편을 지성껏 공경하였고 후에 남편이 천수를 다하자 예절로써 치상하고 스스로 자결하였다.

부인의 가륜한 열행은 유림들의 추천으로 삼강록(三綱錄)에 등재하였고 원근에 많은 교훈이 됐다.⁹⁰⁾

90) 三綱錄 參照

역대(歷代) 현감(縣監) · 군수(鄧守) 명단(名單)(1392~2010)

조선시대의 현감

성명	연도	왕조년도	비고
최덕지(崔德之)	1392~	태조 1년	清簡爲治
황 육(黃 陸)	1400~	정종 2년	政淸事濶
오치연(吳致衍)	1401~	태종 1년	
박보석(朴保錫)			
정말손(鄭末孫)			
박충서(朴忠恕)	~1418	태종 18년	
태 석(太 錫)	1419~	세종 1년	自長溪移邑長水
민신지(閔愼之)			
최종복(崔宗復)	~1450	세종 32년	
신효원(申孝源)	1451~	문종 1년	
국경례(鞠經禮)	1455~	세조 1년	
김보칠(金甫漆)			
이재인(李在仁)			
이 복(李 福)			
김영정(金永鼎)	~1468	세조 14년	
양정명(梁井明)	1469	예종 1년	
김수강(金壽康)	1470~	성종 1년	
이 제(李 梯)			
박성건(朴成乾)			
임귀지(林貴之)			
임옥산(林玉山)	1469~1475		以孝化民
전 겸(全 謙)			
이희맹(李希孟)			
정원로(鄭元老)	~1494	성종 25년	
정 수(鄭 壽)	1495~	연산 1년	
안처직(安處直)			
오세창(吳世昌)	~1506	연산 12년	
정인원(鄭仁原)	1506~	중종 1년	
안처경(安處卿)			
황 위(黃 瑋)			
김 홍(金 洪)			
정한용(鄭漢龍)			
정유돌(鄭惟淡)			

성명	연도	왕조년도	비고
조세천(趙世贊)			
유복룡(柳伏龍)	~1544	중종 39년	
김충윤(金忠胤)	1545	인종 1년	
임 익(林 益)	1546~	명종 1년	
민계점(閔繼點)			
김천부(金天富)			
원 봉(元 鵬)			
조 옥(趙 昱)			
소 수(蘇 遂)			
김 희(金 曦)			
이 재(李 孜)			
김수걸(金秀桀)	1567	명종 22년	
오 원(吳 諫)	1568~	선조 1년	
심우선(沈友善)			
이의충(李義忠)			
조희안(趙希顔)			有去思碑
최경회(崔慶會)			
이구호(李久豪)			
윤 엄(尹 儼)			
김수복(金秀福)			
구 언(具 言)			
정 지(丁 至)			
박 린(朴 璘)			
이 빈(李 贇)			
전 협(田 浹)			
정대민(鄭大民)			
강복성(康復誠)			
안충립(安忠立)			
도여국(都與國)			
채 황(蔡 旣)			
윤경남(尹景南)			
한 형(韓 訶)			興學位政
기 린(奇 蘭)	~1608	선조 41년	清簡爲治
이응룡(李應龍)	1609~	광해 1년	有去思碑
이계지(李繼祉)			
권 양(權 養)			

성명	연도	왕조년도	비고
하 성(河 性)			
이정신(李鼎臣)			
장우한(張遇漢)	~1623	광해 15 년	
허 평(許 坪)	1623~	인조 1년	
윤 흡(尹 滄)			
정 운(鄭 沄)			
정 호(鄭 浩)			
홍효손(洪孝孫)			
이희증(李希曾)			
윤세임(尹世任)			
이대기(李大奇)			
이익배(李益培)			
신 경(愼 暉)			
남두표(南斗杓)			有去思碑
서필성(徐必成)	~1649	인조 27년	有去思碑
권 심(權 訖)	1650~	효종 1년	
김사진(金士珍)			
이 역(李 縝)	~1659	효종 10 년	有去思碑
이문회(李文會)	1660~	현종 1년	
오도종(吳道宗)			
송백초(宋百初)			
한 기(韓 璽)			
이두환(李斗煥)			
한시중(韓時中)			
한정상(韓鼎相)			有去思碑
이정지(李鼎至)			
조이중(趙爾重)	1674	현종 15 년	
조종면(趙宗冕)	1675~	숙종 1년	有去思碑
민 순(閔 洵)			
이이태(李以泰)			
이선연(李善淵)			清簡爲治愛民獎學 有去思碑
민진승(閔鎭嵩)			有去思碑
김세평(金世平)			有去思碑
안여익(安汝益)			
윤이징(尹以徵)			
구상정(具尙禎)			

성명	연도	왕조년도	비고
권 설(權 高)			有去思碑
최 호(崔 滬)			
김 혼(金 混)			
박태서(朴泰舒)			有去思碑
김진망(金鎭望)			
이수형(李秀衡)			
임 선(任 歆)			
황명석(黃命錫)			有去思碑
이만혁(李萬赫)	~1720	숙종 46년	
윤일교(尹一敎)	1721~	경종 1년	
권만두(權萬斗)	~1724	경종 4년	
남정해(南正夏)	1725~	영조 1년	
이휘증(李徽曾)			
황성해(黃星河)			
한사익(韓師益)			
이태징(李台徵)			
이기중(李基宗)			
김홍득(金弘得)			
황호원(黃顯源)			
김상설(金相設)			
이윤언(李胤彦)			
권정징(權靜徵)			
임정섭(林廷燮)			
이도보(李道輔)			
서명부(徐命敷)			有去思碑
권 헌(權 攄)			
권덕성(權德性)			
윤창렴(尹昌廉)			
윤 창(尹 昶)			
김안점(金安黈)			
이은제(李殷濟)	~1776	영조 52년	
김재칠(金載七)	1777~	정조 1년	
임인호(林仁浩)			
박종간(朴宗幹)			
이상징(李象鼎)			
최길헌(崔吉憲)			
송이민(宋裏敏)			

성명	연도	왕조년도	비고
박수형(朴壽亨)			
유심춘(柳尋春)			有去思碑
이재익(李在翼)			
이영원(李英援)			
최수형(崔壽亨)	~1800	정조 24년	
박종민(朴宗民)	1801~	순조 1년	
윤행성(尹行成)			
심문영(沈文永)			
김재겸(金載謙)			有去思碑
송명규(宋明圭)			
이헌승(李憲承)			
이의성(李義聲)			有去思碑
상동규(尙東奎)			
이기희(李基恢)			有去思碑
이계양(李啓陽)			
윤도일(尹度一)	~1834	순조 34년	有去思碑
김대현(金台鉉)	1835~	헌종 1년	有去思碑 官至參判
윤영익(尹榮翼)			
류후조(柳厚祚)			官至右相
정주석(鄭胄錫)			清簡爲治
조능하(趙能夏)	1849	헌종 15년	有去思碑
이상억(李象億)	1850~	철종 1년	有去思碑
이계주(李啓周)			有去思碑
조병노(趙秉老)			有去思碑
이승유(李承裕)			有去思碑
유치중(俞致中)	~1863	철종 14년	
박제갑(朴齊甲)	1864~	고종 1년	有去思碑
이희도(李羲道)			
이상연(李象淵)			
이제구(李齊龜)			
유진원(俞鎭元)			
김영문(金永文)			
홍우정(洪祐鼎)			
박제억(朴齊億)			
이주의(李周儀)			
윤태원(尹泰元)			
홍재택(洪在鐸)			有去思碑

성명	연도	왕조년도	비고
어병선(漁秉璿)			
송중흥(宋鐘興)			
유학증(柳鶴增)			
박창윤(朴昌胤)			
김요훈(金堯勛)			
이헌우(李憲愚)			
김영고(金永考)			
이동화(李同和)			
유치성(俞致誠)			
이용덕(李容德)			
이장호(李章鎬)			
유일환(俞一煥)			
정해팔(鄭海八)			
경필영(慶必永)			
홍순갑(洪淳甲)			
어윤문(漁允文)			
정관희(鄭觀喜)			
권직상(權直相)			
김상일(金相一)			
정휴택(鄭休澤)			
박준성(朴準成)	~1907	고종 43년	
유태영(柳泰英)	1907~	순종 1년	
황익연(黃翼淵)	1910~	순종 4년	
유기덕(柳基德)	1911~	일제침략시대	
한 옥(韓 旭)			
이승한(李承漢)			
윤수병(尹壽柄)			
윤석필(尹錫弼)			
이종소(李鐘紹)			
주시헌(朱時憲)			
김병희(金炳喜)			
송주옥(宋柱玉)			
임명순(林明洵)			
김창수(金滄洙)			
임춘성(林春成)			有紀念碑
엄주완(嚴柱完)	~1945	일제침략 36년	
이영택(李榮鐸)	1945~	미군정시대	

성명	연도	왕조년도	비고
안진길(安晉吉)	~1948	미군정시대	
이진용(李鎭鏞)	1948.03~	1948년12월 대한민국	

군수 명단(鄧守 名單)

군 수	기 간	비고
임종길(林鍾吉)	1948.12.17 ~ 1950.05.05	
백남기(白南基)	1950.05.06 ~ 1951.04.23	
고재열(高在烈)	1951.04.24 ~ 1952.04.09	
이교완(李敎完)	1952.04.10 ~ 1953.06.26	
홍석모(洪錫模)	1953.06.27 ~ 1954.10.10	
김윤철(金允喆)	1954.10.11 ~ 1957.01.16	
김영순(金榮洵)	1957.01.17 ~ 1957.05.26	
박승대(朴勝大)	1957.06.10 ~ 1959.01.11	
정성봉(鄭星鳳)	1959.01.12 ~ 1960.05.22	
유용규(柳龍圭)	1960.05.23 ~ 1960.11.28	
엄봉이(嚴鳳伊)	1960.11.29 ~ 1961.07.20	
허영목(許永穆)	1961.07.21 ~ 1961.11.21	
이병기(李炳基)	1961.11.22 ~ 1962.03.25	
권중영(權重營)	1962.03.26 ~ 1963.07.25	
전종권(全宗權)	1963.07.26 ~ 1965.03.26	
길기순(吉基順)	1965.03.27 ~ 1967.12.23	
최병호(崔丙鎬)	1967.12.24 ~ 1968.04.14	
최광열(崔光烈)	1968.04.15 ~ 1971.01.08	
권응주(權鏞周)	1971.01.09 ~ 1973.06.03	
김준수(金準洙)	1973.06.04 ~ 1974.12.01	
박판서(朴判緒)	1974.12.02 ~ 1975.06.13	
장월하(張月河)	1975.06.14 ~ 1976.03.15	
유완순(柳完淳)	1976.03.31 ~ 1978.07.09	
육종진(陸鍾振)	1978.07.10 ~ 1980.03.11	
고광순(高光淳)	1980.03.12 ~ 1980.11.26	
김용신(金容信)	1980.11.29 ~ 1981.12.22	
박청준(朴淸俊)	1981.12.23 ~ 1983.04.13	
원형연(元亨淵)	1983.04.14 ~ 1984.11.01	
이용규(李容圭)	1984.11.02 ~ 1986.03.08	
김하영(金河寧)	1986.03.09 ~ 1986.12.23	

군 수	기 간	비고
하광선(河廣善)	1986.12.24 ~ 1988.06.10	
곽정훈(郭正勳)	1988.06.11 ~ 1989.08.31	
이해상(李海相)	1989.09.01 ~ 1991.01.13	
장형돈(張鉉敦)	1991.01.14 ~ 1992.07.05	
김종래(金鍾來)	1992.07.06 ~ 1993.12.31	
전희재(全熙宰)	1994.01.01 ~ 1994.12.30	
주재만(朱宰萬)	1994.12.31 ~ 1995.06.30	
김상두(金祥斗)	1995.07.01 ~ 2002.06.30	
최용득(崔容得)	2002.07.01 ~ 2002.11.21	
장재영(張在英)	2002.12.20 ~ 현재	

편집 여적

우리 장수 고을은 지리적으로 산고수장(山高水長)하여 공기 맑고 물 맑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순박하여 미풍양속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충절과 효심의 정신이 강하여 三節을 비롯한 많은 충신, 열사, 효자, 효부 등 우리 장수군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정신적 지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훌륭한 선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살기 좋은 장수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1927년 4월 30일에 건(乾), 곤(坤)의 두 권으로 『장수지(長水誌)』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그 자취를 남겼으며, 그 후 1982년 12월 31일에 『삼절(三節)의 고장』이란 표제로 발간되었으나 자료수집이 미흡하고 내용이 소홀한 점이 많았다.

이어서 군지 편찬을 위하여 3년간의 노력 끝에 1990년 10월 10일 장수군지(長水郡誌) 증보판을 다시 발간하였다. 그 후 1997년 군지로서는 4번째 수정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4집을 발간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주위의 여건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군지는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어 2008년 10월 28일 제1차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20명의 위원들이 장수군지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을 수립하여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자료수집과 조사 분석을 통하여 본지 발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편찬위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능력의 한계가 있어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지를 발간하기까지 장재영 군수의 깊은 배려가 기반이 되었으며 자료수집과 분석 정리는 기획홍보실 실무진의 노고가 큰 보탬이 되었다.

2010년 8월 31일
장수군지편찬위원 일 동

편찬위원		집필위원 (목차순)	
위원장	장재영(군수)	제1편 지리	유기석(문인협회 장수군지부장) 강철규(문화원장)
부위원장	강철규(문화원장)	제2편 역사	곽장근(군산대학교 교수) 고두영(전 문화원장)
위원	유기석(문인협회 장수군지부장) 고두영(전 문화원장) 곽장근(군산대학교 교수) 양해도(논개정신 선양회장) 오재만(군의원) 김흥기(군의원) 한규준(향토문화연구회장) 김순홍(애향장학재단 사무국장) 권종소(전 산림조합장) 김홍부(전 문인협회 장수군지부장) 신병호(교육장) 김대중(향교 유림) 유기종(신문기자) 권승근(향토문화연구회장) 박수섭(성균관 자문위원) 장성열(초등학교 교감) 김진영(전 논개정신 선양회장) 임정택(군의원)	제3편 정치·행정	양해도(논개정신 선양회장)
		제4편 산업·경제	김홍부(전 문인협회 장수지부장) 권종소(전 산림조합장) 한규준(향토문화 연구회원) 김순홍(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제5편 교육·문화	신병호(교육장) 유기종(신문기자)
		제6편 종교	김대중(향교유림)
		제7편 문화·유산	박수섭(성균관 자문위원) 장성열(초등학교 교감)
		제8편 인물	김진영(전 논개정신 선양회장) 권승근(향토문화연구회장) 임정택(군의원)
간사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서기	류지봉(홍보담당)		

장수군지

제2권 종교 | 문화유산 | 인물

발행일 | 2010년 8월 31일

발행인 | 장수군수

발행처 | 장수군청

편집위원 | 강철규, 고두영, 김순홍, 박수섭, 임정택, 장성열

디자인 · 인쇄 | (주)피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2 번지 피앤빌딩

전화 : 063-273-4092~3

장수군지 전2 권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리 176-7)

장수군청 기획홍보실 063-350-2220
